

YEEEK

WELCOME TO THE YWCA FAMILY!



일시	프로그램 내용
4. 22 (화) 12:00~12:30 한국YWCA연합회	YWCA 탈핵 불의날 영화제 화요일마다 진행했던 YWCA의 불의날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를 맞아, 탈핵 관련 영화를 함께 보고, 탈핵 운동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YWCA의 뜨거웠던 화요일을 다시 함께해요!
4. 23 (수) 12:00~13:30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제 1697차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는 수요시위에 함께해주세요! 반복되는 전시 여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모든 차별과 억압, 폭력과 착취에서 해방된 세상을 꿈꾸는 YWCA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4. 25 (금) 10:00~17:00 버들캠프장 벚꽃 축제	버들캠프장 벚꽃 축제 매년 4월 24일은 '세계YWCA의 날'이자, 버들캠프장의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입니다. 잠들어 있는 버들캠프장을 깨워 YWCA를 기억하는 여러분을 초대하는 '홈컴데이'를 진행합니다.

2025. 4. 22(화)
—— 4. 25(금)

한국YWCA연합회
부천 버들캠프장

1st YWCA 주간
YWCA WEEK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대전 042.254.3035	(사)속초 033.635.3523	(사)의정부 031.853.6332	(사)춘천 033.254.4878
(사)가제 055.682.4950	(사)동해 033.531.3007	(사)수원 031.252.5111	(사)익산 063.857.8910	(사)충주 043.848.3240
(사)고양 031.919.4040	(사)마산 055.246.8746	(사)순천 061.744.7990	(사)인천 032.424.0524	(사)통영 055.646.2547
(사)광양 061.762.0012	(사)목포 061.242.1611	(사)안동 054.854.5481	(사)전주 063.224.5501	(사)파주 031.945.5998
(사)광주 062.609.1300	(사)부산 051.441.2221	(사)안산 031.483.6536	(사)제주 064.711.8322	(사)평택 031.651.7701
(사)군산 063.462.4491	(사)부천 032.668.970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사)제천 043.645.2580	(사)포항 054.274.4444
(사)김해 055.332.6000	(사)사천 055.833.2344	(사)양산 055.367.1144	(사)진주 055.755.3463	(사)하남 031.793.7771
(사)남양주 031.577.7762	(사)서귀포 064.762.1400	(사)여수 061.654.2161	(사)진해 055.542.0020	
(사)남원 063.632.7002	(사)서울 02.3705.6000	(사)울산 052.247.3520	(사)창원 055.283.9488	
(사)논산 041.736.7393	(사)성남 031.708.2503	(사)원주 033.742.6090	(사)천안 041.575.0961	
(사)대구 053.652.0070	(사)세종 044.865.2432		(사)청주 043.265.3700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한국YWCA

2025 SPRING 01+02+03 Vol.592

특집

2025년 한국YWCA정기총회

2025 정기총회 스케치
회원YWCA 신임회장·신임사무총장
사진으로 보는 회원YWCA 정기총회

기획

베이징30+,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북경선언·행동강령 30주년이 전하는 메시지
성평등을 위해 가속화하라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제사회 공론장

교육, 현장을 찾아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연대의 강한 힘

청년토크

다시 만난 세계:
왜 2030여성들은 광장으로 나왔을까



www.ywca.or.kr



문화예술 여성청년활동가를 찾습니다!

- Y** — 수평, 깨어있음, 변화, 극복
- W** — 여성리더십, 성평등, 차별배제, 다양성
- C** — 기후정의, 생명, 돌봄, 살림, 평화
- A** — 연대, 주체성, 지역성

공모 대상
문화예술 분야의 여성청년활동가 개인 또는 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여성청년

지원 내용
프로젝트 활동비 350만원 이내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선정 규모
2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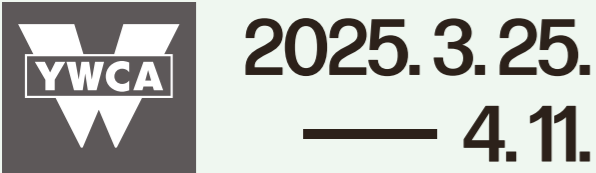
모집 일정
2025. 3. 25. (화) - 4. 11. (금)

프로젝트 실행기간
2025. 5. 1. (목) - 12. 31. (수)
*대면 OT 및 최종공유회 필수참석

공모 신청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
go100@ywca.or.kr

후원하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Vol.592
2025 SPRING 01+02+03
www.ywca.or.kr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4월~6월 주요 일정

- 4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
- 4월 3일 썬크머니 협약식
- 4월 10일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 워크숍
- 4월 11일 YWCA 의료공론 플랫폼 오픈
- 4월 20일 한국YWCA 103주년 창립기념일
- 4월 24일 2025 YWCA 전국회장단 연수
- 4월 16일~17일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교육
- 4월 25일 YWCA의 날
- 5월 7일 월례아침기도회
- 5월 8일 기술매개젠더폭력 워크숍
- 5월 15일 YWCA 의료공론 플랫폼 2차
- 5월 20~21일 YWCA 신입실무 활동가 교육
- 5월 21~22일 회원YWCA 연차별 역량강화교육
- 6월 2일 월례아침기도회
- 6월 6일 6.6 평화의날 평화대회(파주)
- 6월 11일~12일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교육
- 6월 17일~18일 상반기 탈핵기후생명실무활동가 워크숍

제62권 제1호 통권 592호
2025년 3월 25일 발행(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조은영 편집인 박은실
편집 안정희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AM10 DESIGN 인쇄 지경문화사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_korea
구독료 연간 3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COVER STORY

2025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2월20일(목)에 열렸다. 전국 50개 회원YWCA와 연합회 총회원 160여 명은 2025년도 정기총회에 모여 "정의, 평화, 생명, YWCA Again!"을 외치며 정의, 평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다시 힘차게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02 이달의 생각**
연대하는 용기! 정의, 평화, 생명의 YWCA Again!
조은영
- 03 말씀 묵상**
총성스럽게
이진아
- 특집 | 2025년도 한국YWCA정기총회**
- 04**
2025 한국YWCA 정기총회 스케치
50개 회원YWCA, 지역사회 변화 이끄는 지역운동체로 편집실
- 06**
회원YWCA 신입회장·회원YWCA 신입사무총장
- 10**
YWCA 권역협의회 대표
제4회 이행자리더십어워드 수상자
- 11**
YWCA 지역운동강화 3개년 지원 계획
- 14**
사진으로 보는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 기획 | 베이징 +30,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 18**
'북경선언·행동강령 30주년'이 전하는 메시지
김은경
- 19**
성평등을 위해 가속화하라 추은지
국제적인 공론장에서 경험적 이슈를 제기하는 여성들 박자인
국제적 교류와 연대 통해 함께 하기 김윤희
- 24**
현장 속으로
민주주의 회복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
김수진
- 27**
교육현장을 찾아 | 2025 YWCA 신입회장교육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연대의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정서연 김미숙 김진환
- 30**
줌:인 | 2024 생명비전연구 프로젝트
시민 주도 연구로 YWCA운동의 내일을 찾다
유은비
- 34**
현장 ① | Y-틴 전국협의회
2025 Y-틴 전국협의회, 새로운 시작
이은혜 임사랑 강경화
- 36**
현장 ② |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YWCA청년조직 및 청년운동 내실화
손지수
- 39**
현장 ③ | YWCA 카디리학교 활동나눔
우리가 뿌린 씨앗, 함께 성장하는 중
이은혜
- 42**
현장 ④ |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오늘의 한국, 시민사회 역할과 과제
편집실
- 47**
책 소개 | 연대하는 용기
'나와 다른 이와 가까이 거할 때' 임하는 위로
- 48**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인공지능은 인격체가 아니라 소비 제품
장영경
- 50**
청년토크
다시 만난 세계 : 왜 2030 여성들은 광장으로 나왔을까
대학·청년YWCA
- 52**
연합회 소식
- 58**
회원YWCA 소식

연대하는 용기로! YWCA Again!

한국YWCA는 지난 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우리의 목적과 정신인 정의, 평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다시 힘차게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정의, 평화, 생명, YWCA Again!'이라는 슬로건을 외쳤다.

왜? 다시 YWCA인가? 103년의 YWCA는 시대를 관통하는 목적문을 기반으로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 하나님



의 나라는 "약하고 소외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온전히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정의"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 정의에 바탕을 둔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평화의 나라"이며, "종래의 제도, 관행, 생활방식,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생명의 나라이다. (장윤재, "오늘의 하나님 나라", 『연대하는 용기』)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 길을 나서는 우리는 새로이 짐을 꾸려야 한다. 지난 세기동안 우리가 해왔던 운동과 운영의 내용과 방식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분간하여 정리할 때다.

우리가 가장 잘해오고 여전히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다시 기독교성 Christianity이다.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로 하나되어야 한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신 각자의 모양만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

중해야 한다. 우리 안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록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열린 논의를 통해 실제적인 대안을 찾아 우리의 기도가 실행으로 증명되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서 다르지만 하나됨의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Y로 향하게 되고 그 발걸음을 환대하는 우리의 준비가 충분한지 돌아볼 시간이다.

우리의 또 다른 강점은 큰 조직을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업무 구조와 절차이다. 100년을 넘은 시행착오와 시대적 적응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의제를 세우며, 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확고히 하여 결정에 이르게 하는 업무과정이 있다. 하지만 이 강점에도 이면에 그늘이 있다. 과정과 절차를 온전하게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누락된 소수의 의견들을 의미 있게 수렴하고 우리의 의사결정과 실행에 녹여낼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한다.

초대교인들은 사순절을 제약이나 고행의 우울한 절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환의 기회로 여겼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고대하며 사순절을 지나는 심정으로 광야에서 길을 나선다. 우리의 인간됨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다시 묻고 그 답을 찾으며 연대하는 용기로! 정의, 평화, 생명, YWCA Again! 🌱

충성스럽게

본문: 여호수아 14장 7-14절

한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 특히 극우 기독교 세력의 내란 옹호와 한국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은 깊은 참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과 비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삶으로 시대의 치유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가짜 충성이 난무하는 시절, 참된 충성의 사람 갈렙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을 따라갑시다. 본문에서 갈렙은 마흔 살에 열두 정탐꾼에 선발되어 가나안 땅에 다녀왔지만, 열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와 백성의 낙심으로 광야에서 45년을 보낸 상황을 담담하게 회고합니다(7-8). 그는 원망하지 않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85세가 되도록 살아남았다 고백합니다(10).



무엇에 충성하는가? 갈렙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다고 본문은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충성스럽게 따르다 라는 말은 온전히,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좇았다는 의미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충성하는가? 무엇을 위해 충성하는가?' 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갈렙의 충성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한다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충성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이끄셨음을 믿었고, 가나안이 주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선언과 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

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이 아닌 조직유지나 개인의 안위로 기울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충성하는가? 긍정과 낙관, 감사의 태도: 갈렙의 말에는(여호수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 광야생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꿈과 소망, 감사와 기대로 가득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른은 공동체의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어른으로 믿음의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돌봄: 85세 노인 갈렙은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말합니다(11). 사명과 비전에 충성하기 위해 몸이라는 그릇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솔선수범: 갈렙은 공로가 있기에 땅분배의 일순위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가장 험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12).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과 주신 소명에 온전히 뿌리 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갈렙과 같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갈렙처럼 한 평생 하나님께 바르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과 함께하십니다. 🌱

정의, 평화, 생명, YWCA Again!

50개 회원YWCA, 지역사회 변화 이끄는 지역운동체로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2월 20일(목) 오전 11시 새문안교회에서 전국 50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직무상 대표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제4회 이행자리디십어워즈 시상식을 진행했고, 2025년 사무회의에서는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 보선의 건과 감사 선임의 건, 회원YWCA관련 규정 개정의 건에 이어 YWCA지역운동강화 지원계획 승인의 건과 2025년 (사)한국YWCA연합회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2025~2027)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5년도 정기총회에 모인 총회원들은 갈등과 분열, 경


제적 위기,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정치사회 환경에서 한국YWCA 초기 목적과 정신인 정의, 평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다시 힘차게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정의, 평화, 생명, YWCA Again!” 슬로건을 외쳤다. 또한 2025~2027 3개년의 지역운동강화 지원계획을 의결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회원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YWCA 운동의 가치를 확산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갑작스런 꽃샘 추위였지만 전국에서 2025년 한해 사업계획과 살림살이를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모인 총회원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설렘과 기대가 묻어 나왔다. 올초 회원YWCA 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어 연합회



정기총회 총회원이 된 전국 17명의 신입회장들은 연합회에서 진행된 1박 2일의 신입회장 교육을 마치고 이른 시간에 총회장에 도착했다. 개회예배에서 부를 특별찬송 리허설을 준비하는가 하면 거제, 광주, 부산, 거제YWCA 등 새벽부터 총회를 위해 나선 총회원들이 속속 도착하며 서로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다. 연합회 조은영 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에는 김은경 연합회 제1부회장의 기도, 회원YWCA 신입회장들의 특별 찬양, 임사랑 Y-틴 전국협의회회장의 말씀 봉독에 이어 새문안교회 임재광 목사가 ‘네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2025년을 살 것을 다짐한 총회원들은 예배를 마치고 “정의, 평화, 생명, YWCA Again!” 슬로건을 들고 2025년 정기총회 기념 사진을 찍었다.

2024년 사업과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YWCA 지역운동강화 지원계획안 승인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도 YWCA 사명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가능성

을 높여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청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한국YWCA는 앞으로도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서기지명, 전 회의록 통과보고, 추모 순서 후 총회원 소개 시간으로 연합회 정기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회원YWCA 신입회장 17명과 신입사무총장 12명의 소개 시간을 가졌다. 권역대표와 Y-틴,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이 소개됐다.

이어진 정기총회 사무회의에서는 ▲법인이사 보선 ▲법인감사 선임 ▲회원YWCA 관련 규정 개정 ▲YWCA 지역운동강화 지원계획(2025-2027) 승인 ▲2025년 (사)한국YWCA연합회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등을 처리했다. 특별히 YWCA 지역운동강화 지원계획(2025~2027)은 YWCA 재구조화 이후 회원YWCA가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운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집중 지원하는 기간과 세부기간과 실행과제를 단계별(영역별)로 수립함으로써 지역운동 조직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25 회원YWCA 신임회장

(사)고양YWCA 회장 **김용주**



- 2005~2015 고양YWCA 여성능력개발 위원장
- 2016~2018 고양YWCA 이사
- 2019~2020 고양YWCA 제2부회장
- 2021~2024 고양YWCA 제1부회장
- 2025~현 (사)고양YWCA 회장

(사)광주YWCA 회장 **김순자**



- 2003~2017 광주YWCA 가정폭력상담소 위원
- 2018~2020 광주YWCA 이사
- 2021~2024 광주YWCA 합창단 단장
- 2025~현 (사)광주YWCA 회장

(사)김해YWCA 회장 **김진환**



- 2005~2015 2015~2016 김해YWCA 이사
- 2016~2017 김해YWCA 부서기이사
- 2018~2019 김해YWCA 부회계이사
- 2023~2025 김해YWCA 부회계이사
- 2025~현 (사)김해YWCA 회장

(사)논산YWCA 회장 **강남옥**



- 2017~2020 논산YWCA 가정폭력상담소 위원
- 2021~2024 논산YWCA 가정성통합상담센터 위원장
- 2021~2024 논산YWCA 회계이사
- 2025~현 (사)논산YWCA 회장

(사)부산YWCA 회장 **김혜진**



- 2009~2012 부산YWCA 해원대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
- 2012~2019 부산YWCA 이사
- 2019~2021 부산YWCA 서기이사
- 2021~2025 부산YWCA 제1부회장
- 2025~현 (사)부산YWCA 회장

(사)성남YWCA 회장 **조남덕**



- 1993~1996 성남YWCA 청소년부위원회 위원장
- 1997~2001 성남YWCA 여성,청소년부위원회 위원장
- 2001~2002 성남YWCA 회계이사, 회장
- 2021~2024 성남YWCA 서기이사
- 2025~현 (사)성남YWCA 회장

(사)수원YWCA 회장 **홍숙영**



- 2005~2007 수원YWCA 회원조직위원회 위원
- 2007~2025 수원YWCA 이사
- 2025~현 (사)수원YWCA 회장

(사)안동YWCA 회장 **이순향**



- 1997~2025 안동YWCA 이사
- 2025~현 (사)안동YWCA 회장

(사)안산YWCA 회장 **김미숙**



- 2013~2024 안산YWCA 이사
- 2013~2018 안산YWCA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 2019~2022 안산YWCA 자치위원회 위원장
- 2023~2024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운영위원회 위원장
- 2021~2024 안산YWCA 부회장
- 2025~현 (사)안산YWCA 회장

(사)원주YWCA 회장 **정영옥**



- 2021~현 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2022~2025 원주YWCA 이사
- 2023~2024 원주YWCA 서기이사
- 2025~현 (사)원주YWCA 회장

(사)인천YWCA 회장 **표신희**



- 2013~2014 인천YWCA 교육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 2015~2018 인천YWCA 회원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 2019~2024 인천YWCA 소비자미디어위원회 위원장
- 2021~2022 인천YWCA 회계이사
- 2023~2024 인천YWCA 제1부회장
- 2025~현 (사)인천YWCA 회장

(사)전주YWCA 회장 **이명자**



- 1980~1987 전주YWCA 간사
- 1987~1990 전주YWCA 총무
- 1997~1999 전주YWCA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 1999~2015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소장(겸임)
- 1999~2018 전주YWCA 사무총장
- 2010~2018 전북하나센터 센터장(겸임)
- 2019~2025 전주YWCA 이사
- 2025~현 (사)전주YWCA 회장

(사)창원YWCA 회장 **신옥희**



- 2005~2015 1998~2008 창원YWCA 이사
- 2009~2011 창원YWCA 서기이사
- 2012~2013 창원YWCA 제2부회장
- 2014~2016 창원YWCA 제1부회장
- 2017~2020 창원YWCA 회장
- 2021~2024 창원YWCA 이사
- 2025~현 (사)창원YWCA 회장

(사)청주YWCA 회장 **오은숙**



- 2001~ 청주YWCA 사회선교, 사업, 상록수, 복지관, 재정 위원, 위원장
- 2007~2008 청주YWCA 이사
- 2008~2013 청주YWCA 부서기, 서기이사
- 2014~2019 청주YWCA 회계이사
- 2023~2024 청주YWCA 제2부회장
- 2025~현 (사)청주YWCA 회장

(사)춘천YWCA 회장 **김은선**




- 2014~2025 춘천YWCA 이사
- 2025~현 (사)춘천YWCA 회장

(사)통영YWCA 회장 **정영희**



- 2014~2016 통영YWCA 이사
- 2016~2018 통영YWCA 회계이사
- 2018~2020 통영YWCA 제2부회장
- 2020~2023 통영YWCA 제1부회장
- 2025~현 (사)통영YWCA 회장


(사)파주YWCA 회장 **윤경애**



- 2024~ 파주YWCA 사업,프로그램위원회 위원
- 2025~ 파주YWCA 이사
- 2025~현 (사)파주YWCA 회장


2025 Y-틴,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장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임사랑**
(사)대전YWCA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회장 **이예림**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2025 회원YWCA 신임사무총장

(사)거제YWCA 사무총장 **백 경 환**



- 2012~2016 거제YWCA 이사
- 2016~2017 거제YWCA 민들레공부방 생활복지사
- 2018~2021 거제YWCA 이사
- 2019~2020 경상남도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2024.3~현 (사)거제YWCA 사무총장

(사)고양YWCA 사무총장 **함 윤 희**



- 2009~2022 고양YWCA 어린이집위원회 위원
- 2022~2025.1 고양YWCA 이사
- 2022~2025.1 고양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국장
- 2025.2~현 (사)고양YWCA 사무총장

(사)안산YWCA 사무총장 **장 미 진**



- 2003~2006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간사
- 2006~2024.3 안산YWCA 여성정책, 성평등교육사업 사무국장
- 2021~2024.3 안산YWCA요양보호사 교육원 기관장(겸직)
- 2022~2024.3 사회적기업 안산돌봄과살림 상임이사
- 2024.3~현 (사)안산YWCA 사무총장

(사)양산YWCA 사무총장 **배 정 속**



- 2005~2024.2 김해YWCA 사회문화부, 사업부, 출판홍보, 청소년부 국장
- 2024.3~2024.8 마산YWCA 회원부, 사회문화 부장
- 2024.9~현 (사)양산YWCA 사무총장

(사)군산YWCA 사무총장 **박 순 주**



- 2014~2016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간사
- 2017~2020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 2020~2022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총괄팀장
- 2022~2025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총괄부장
- 2025.3~현 (사)군산YWCA 사무총장

(사)남원YWCA 사무총장 **최 미 혜**



- 2005~2007 남원YWCA 사랑의집 상담원
- 2008~2009 남원YWCA 사랑의집 팀장
- 2010~2012 남원YWCA 사랑의집 시설장
- 2013~2016 남원YWCA 가정폭력상담소 부장
- 2016~2024.3 남원YWCA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2024.4~현 (사)남원YWCA 사무총장

(사)울산YWCA 사무총장 **최 현 미**



- 2003~2008 대구YWCA 소비자, 청소년, 여성취업지원센터 팀장
- 2008~2014 울산YWCA 인사지도력, 프로그램부, 회원부 부장
- 2014~2015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원
- 2015.6~2015.12 하나로YWCA 문화센터 센터장
- 2016.1~2016.12 울산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씨밀레 센터장
- 2017~2019 울산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2020~2024.8 울산YWCA 이사
- 2024.9~현 (사)울산YWCA 사무총장

(사)원주YWCA 사무총장 **윤 미 혜**



- 2005~2007 2002~2019 서울원주어린이집 원감, 원장
- 2019~2021 상지대학교 인권센터 상담사
- 2021~2024 강릉원주대학교 직업상담사
- 2024.6~2025 원주YWCA 간사
- 2025.3~현 (사)원주YWCA 사무총장

(사)대구YWCA 사무총장 **이 미 영**



- 1991~1998 대구YWCA 어린이부, 대학부, 직업개발부, 사회문제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간사
- 2008~2010 대구YWCA 사회복지기업간병단,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부장
- 2011~2013 대구YWCA 사회적기업간병단, 기획위원회 부장
- 2013~2017 대구YWCA 재가노인돌봄센터 소장
- 2017~2024.9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2024.10~현 (사)대구YWCA 사무총장

(사)서울YWCA 사무총장 **최 봄**



- 2004~2010 서울YWCA 평생교육부, 노인문화부, 회원부 간사
- 2010~2014 서울YWCA 노인문화부, 회원부, 모금개발부, YWCA복지사업단 서울지부 사무국 차장
- 2014~2018 서울YWCA 모금개발부, YWCA복지사업단 서울지부 부장
- 2018~2025.1 서울YWCA 사회운동국, 명예위원모임, YWCA복지사업단 서울지부 국장
- 2025.2~현 (사)서울YWCA 사무총장

(사)진해YWCA 사무총장 **정 현 옥**



- 2000~2002 진해여성인력개발 상근활동가
- 2003~2005 진해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2006~2020 베이커리 카페 운영
- 2021~2024 (취재)케이종합건설 대표
- 2025.1~현 (사)진해YWCA 사무총장

(사)춘천YWCA 사무총장 **지 은 희**



- 2006~2018 디자인창 대표
- 2019, 2024 어린이도서관 활동가
- 2021~2023 춘천여성협동조합 조직관리팀장
- 2013~2025 춘천여성협동조합 이사, 이사장(비상근)
- 2014~2025 춘천여성회 대표(비상근)
- 2025.3~현재 (사)춘천YWCA 사무총장

(사)성남YWCA 사무총장 **장 명 자**



- 1995~1997 성남YWCA 간사
- 2016~2024 성남여성인력개발 상담사
- 2019~2021 성남YWCA 이사
- 2021~2025 성남YWCA 회장
- 2025.3~현 (사)성남YWCA 사무총장

(사)세종YWCA 사무총장 **홍 진 영**



- 2008~2015 세종YWCA 청소년, 노인대학, 사회개발위원회 팀장
- 2019~2022 세종YWCA 이사
- 2021~2024 세종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국장
- 2025.1~현 (사)세종YWCA 사무총장

(사)포항YWCA 사무총장 **김 수 정**



- 2009~2012 포항YWCA 사회문제, 직업개발 간사
- 2012~2016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새일센터 차장
- 2016~2017 포항YWCA 회원, 직업개발 부장
- 2017~2024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2025.1~현 (사)포항YWCA 사무총장

2025 YWCA 권역협의회 대표

경기권역대표	경상권역대표	경인강원권역대표	전라제주권역대표	충청권역대표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회장 박혜숙	(사)대구YWCA 회장 김연희	(사)서울YWCA 회장 조연신	(사)목포YWCA 회장 강경숙	(사)천안YWCA 회장 이혜경

제4회 이행자리더십어워즈 수상자



김연희 (사)대구YWCA 회장

선정 사유

(사)대구YWCA 창립 100주년을 맞아 회장으로서 YWCA 운동의 역사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익적 운영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여 한국YWCA 자원활동가 리더십의 모범이 됨.



구정혜 (사)한국YWCA연합회 전 사무총장

선정 사유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맞은 (사)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YWCA 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YWCA 지역운동 기반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기독교여성시민운동 단체로서의 혁신과 변화를 이끔.

이행자리더십어워즈

제정 취지 : 이행자리더십어워즈는 한국YWCA 목적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연합회와 회원YWCA의 자원, 실무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되었으며, 이행자리더십기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역대수상자 : 제1회 - 유성희 (사)한국YWCA연합회 전 사무총장
제2회 - 김선옥 (사)광주YWCA 직전회장·이유림 (사)서울YWCA 직전회장
제3회 -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직전회장

YWCA 지역운동강화 3개년 지원 계획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

- ① 회원YWCA 활동가 양성 및 지역운동의 주체성 강화
- ② 지역운동의 회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
- ③ 주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년·청년운동 전개
- ④ 연합회와 회원YWCA간 연대와 협력 강화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지역운동 이슈 및 모델개발

YWCA 전국 중점 운동 실천 강화

YWCA 회원 및 시민참여 활성화

YWCA 운동재원 확보

YWCA 지역운동강화 지원계획(안)(2025~2027년) 총괄표

목적	YWCA 재구조화 이후 회원YWCA가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지역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운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집중 지원하는 기간과 세부 실행 과제를 단계별(영역별)로 수립함으로써 지역운동 조직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핵심가치	회원Y 주체성, 시민참여성, 연대성, 지속가능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원YWCA 활동가 양성 및 지역운동의 주체성 강화 ② 지역운동의 회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 ③ 주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년·청년 운동 전개 ④ 연합회와 회원YWCA간의 연대와 협력 강화
중점추진 과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지역분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2. 자원활동가 운동역량 강화 1-3. 실무활동가 운동역량 강화 ② 지역운동 이슈 및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지역분석 지원 2-2. 지역 맞춤형 운동 모델 개발 및 운영지원 ③ YWCA 전국중점운동 실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전국중점운동 관점 및 이슈 공유 강화 3-2. 중점운동의 지역화 강화 3-3. 광역시도협의회 단위의 운동성 강화 ④ YWCA 회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 전국 공동 캠페인 전개 4-2. 온라인/ 데이터 기반의 Y시민운동 전개 4-3. 청소년·청년 운동 활성화 ⑤ YWCA 운동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 지역운동 프로젝트 및 모델 사업 지원 5-2. 지속가능한 Y운동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영역	중점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연도별 목표	이행 주체		연도별 추진 일정		
				연합회	회원Y	2025	2026	2027
①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1-1 지역분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1-1 지역분석 교육과정 개발	【2025년】 지역분석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교육	●		●		
		1-1-2 지역분석 교육과정 운영	【2026년】 지역분석 활동가 양성교육(기초) 【2027년】 지역분석 활동가 양성교육(심화)	●		●	●	
	1-2 자원활동가 운동 역량 강화	1-2-1 자원활동가 기본교육	【2025~2027년】 온라인 아카데미-신임회장교육 -신임이사교육- 전국회장단연수	●		●	●	●
		1-2-2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	【2026년】 15개 회원Y 【2027년】 14개 회원Y	●			●	●
	1-3 실무활동가 운동 역량 강화	1-3-1 실무활동가 기본교육	【2025년】 온라인 아카데미- 신임실무활동가 교육 - 중견실무활동가교육(격년)	●		●	●	●
			【2026년】 온라인 아카데미- 신임실무활동가 교육 【2027년】 온라인 아카데미- 신임실무활동가 교육 - 중견실무활동가 교육(격년)	●		●	●	●
		1-3-2 사무총장 기본교육	【2025~2027년】 신임사무총장 1:1 행정훈련 - 신임사무총장교육	●		●	●	●
		1-3-3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교육	【2025년】 50개 회원Y 사무총장(연차별 4개그룹)	●		●		
	② 지역운동 이슈 및 모델 개발	2-1 지역분석 지원	2-1-1 운동별 지역 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6-2027년】 지역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접근 경로, 운동별 지역 데이터 분석결과 취합	●	●		●
2-1-2 회원Y 지역분석 사례 공유			【2026-2027년】 회원Y 지역분석 사례 모음 및 전국Y 공유	●	●		●	●
2-2 지역 맞춤형 운동 모델 개발 및 운영지원		2-2-1 지역분석기반 회원Y운동 모델 발굴 위한 종합지원	【2026년】 성평등, 탈핵기후운동 2개 지역 지역 맞춤형 운동모델발굴(연합회 종합지원)- 운동모델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	●			●
		2-2-2 지역기반 회원Y운동 모델 확대	【2027년】 지역맞춤형 운동모델발굴 확대(4개지역지원)- 운동모델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		●	●	●
③ YWCA 전국중점 운동 실천 강화	3-1 전국중점운동 관점 및 이슈 공유 강화	3-1-1 YWCA 중점운동 교육	【2025년】 YWCA운동담당실무자협의회(상반기 교육, 하반기 협의) - 중점운동실무자워크숍 (2회 현장 탐방 포함) - 운동이슈브리핑(격월 운영, 회원Y사무총장대상) 【2026년-2027년】 2027-2028 운동정책 교육 운영(전사총, 실무협의회 등) - 운동담당실무자협의회(연2회)- 운동이슈브리핑(격월 운영) - 중점운동실무자워크숍 지속	●		●	●	●

영역	중점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연도별 목표	이행 주체		연도별 추진 일정		
				연합회	회원Y	2025	2026	2027
④ YWCA 전국중점 운동 실천 강화	3-2 중점운동의 지역화 강화	3-2-1 중점운동의 지역 공동 사업 전개	【2025년】 성평등기후정책모니터링 공동사업 전개 : 10개 회원Y 목표	●	●	●		
		3-2-2 중점운동의 지역 모델 발굴	【2025년~2027년】 운동정책 세부과제 연계 회원Y 지원 : 매해 2개 이상 회원Y 발굴 및 지원 (예, 방사능 급식조례, 재생에너지 확산 등)	●	●	●	●	●
		3-2-3 중점운동 지역 사례 확산	【2026년】 중점운동 지역 사례집 발간 및 홍보 - 지방선거 정책 반영 【2027년】 선거정책 반영	●	●		●	●
	3-3 광역시도협의회 단위 운동성 강화	3-3-1 광역시도협의회 운동 네트워킹 강화	【2025년】 지역운동 주제연구 발굴 및 연구지원 (2개 협의회 목표)	●	●	●		
		3-3-2 광역시도협의회별 정책 제안	【2026년】 도합별 지방선거 정책 제안 【2027년】 도합별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 및 운동 전개	●	●		●	●
	④ YWCA 회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	4-1 전국 공동 캠페인 전개	4-1-1 전국 공동 캠페인 기획 및 운영	【2025년】 1차년도 주제 선정 및 캠페인 기획 운영 【2026년】 2차년도 주제 선정 및 캠페인 기획 운영 【2027년】 3차년도 주제 선정 및 캠페인 기획 운영	●	●		●
4-2 온라인 데이터 기반의 Y시민운동 전개			【2025년】 온라인 운동 전략 및 활성화 방안 기획 - 온라인 운동을 위한 플랫폼 개발 【2026~2027년】 온라인 시민운동을 위한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 온라인 시민운동 사례 취합 및 공유	●	●		●	●
4-3 청소년·청년 운동 활성화		4-3-1 청소년·청년 주도 운동 지원	【2025년~2027년】 지역기반의 Y청소년·청년 주도 운동 기획 및 운영	●		●	●	●
		5-1 지역운동 프로젝트 및 모델 사업 지원	5-1-1 지역운동 프로젝트 지원 모금	【2025년】 지역운동 프로젝트 지원금 모금 기획 및 지원기준 마련	●		●	
5-1-2 지역운동 모델 사업 발굴 및 실행	【2026년~2027년】 지역운동 프로젝트 모델 사업 지원 및 실행		●	●		●	●	
⑤ YWCA 운동 재원 확보	5-1-3 지역운동 모델 사업 평가 및 성과 공유	5-1-3 지역운동 모델 사업 평가 및 성과 공유	【2026년~2027년】 지역운동 프로젝트 평가 및 성과 공유	●	●		●	●
		5-2 지속가능한 Y운동 재원 확보 방안 마련	5-2-1 Y운동형 수익사업 개발 및 실행	【2025년】 Y운동형 수익사업 기획 및 개발 【2026-2027년】 Y운동형 수익사업 실행	●	●	●	●
	5-2-2 적극적 재원 마련 방안 모색		【2025년】 재원 마련 다각화 방안 연구 및 발굴 【2026-2027년】 재원 마련 사업 실행	●	●	●	●	●

사진으로 보는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전국 50개 회원 YWCA는 정기총회를 열어 전년도 활동과 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진행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 YWCA를 대표하는 회장을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원YWCA에 따라서는 회원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하는가 하면 Y-틴이나 대학·청년YWCA 회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경기권역

- ①고양YWCA ②남양주YWCA
- ③부천YWCA ④성남YWCA
- ⑤수원YWCA ⑥안산YWCA
- ⑦안양과천군포의왕YWCA
- ⑧의정부YWCA ⑨파주YWCA
- ⑩평택YWCA ⑪하남YWCA



경인·강원권역

- ①강릉YWCA ②동해YWCA ③서울YWCA
- ④속초YWCA ⑤원주YWCA ⑥인천YWCA ⑦춘천YWCA



충청권역

- ①논산YWCA ②대전YWCA
- ③세종YWCA ④제천YWCA
- ⑤천안YWCA ⑥청주YWCA
- ⑦충주YWCA



경상권역

①거제YWCA ②김해YWCA ③대구YWCA ④마산YWCA ⑤부산YWCA ⑥사천YWCA ⑦안동YWCA ⑧양산YWCA
⑨울산YWCA ⑩진주YWCA ⑪진해YWCA ⑫창원YWCA ⑬통영YWCA ⑭포항YWCA



전라·제주권역

①광양YWCA ②광주YWCA ③군산YWCA ④남원YWCA ⑤목포YWCA ⑥서귀포YWCA ⑦순천YWCA
⑧여수YWCA ⑨익산YWCA ⑩전주YWCA ⑪제주YWCA



‘북경선언·행동강령 30주년’이 전하는 메시지

+ 김은경 (사)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세종리더십개발원장

지난 3월 10일부터 2주간 제 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UNCSW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열렸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와 북경선언·행동강령(1995) 채택 30주년을 기념하여 북경선언·행동강령 BPFA(Beijing Platform for Action) 이행과 제23차 유엔총회 특별회의의 결과 검토와 평가이다. 이 검토는 행동강령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도전 과제와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달성의 평가를 포함하여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완전한 실현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루는 것으로 이행 상태 검토와 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그리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기회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정부는 국가보고서 National-level reviews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지난 30년의 성과와 도전 과제들을 검토하고, 지역 차원의 평가 Regional 30-year review processes도 준비해야 했다. 또한 뉴욕 현지 UN 본부에서는 회원국 정부 대표, 기관 대표, 그리고 NGO들이 모여 각국의 ‘북경 선언과 행동강령’ 이행 상황에 대해 토의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1995년 이후로 여아 교육에서 성평등이 달성되었으며, 산모 사망률은 3분의 1이 감소했다. 정치 분야 여성의 대표성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1995년부터 2024년까지 189개국 및 지역에서 1,531건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차별적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어디에도 성불평등은 여전히 현실로 버티고 있고 현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성범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여한 여성가족부 신영숙 장관 대행은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법정 형량 상향과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그리고 최근의 ‘목사방’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글로벌 위기는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

성평등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북경선언·행동강령 30주년의 담대한 로드맵은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 여성 시민들의 과제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위험한 사회가 되어 있다. 지난 2년 7개월, 반페미니즘, 반여성 기조를 전면에 띄우고 등장한 현 정부의 저항 백래시 backlash·반동은 없애지도 못할 여성가족부를 형해화시키고, ‘혐오의 공간’을 승인하고 열어주는 사회적 재난을 가져왔다.

2주간 여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 북경선언·행동강령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속한 나라의 현실을 직접 전했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더딜 수 있지만, 그 목소리들이 연결되어 만들어낼 파장은 분명 크고 거셀 것이다. 우리도 이제 기다릴 일이 아니다. 정당과 국회가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실질적 성평등을 앞당기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고 실행해 옮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고, 가장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고 성차별적 고정관념, 편견,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여성의 리더십을 옹호해야한다 2025년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평등한 세상을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되도록 행동하지 않는다면 성평등은 아득히 먼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평등을 위해 가속화하라

+ 추은지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CSW 한국YWCA 대표단

한국YWCA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이하 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한 NGO로서, 올해도 7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다양한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한국YWCA의 활동과 목소리를 세계무대에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참가를 통해 한국YWCA는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글로벌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YWCA의 역할과 과제를 고민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한국YWCA, NGO로서 적극적으로 참여

CSW에서 NGO의 참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제출하고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둘째, 정부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본회의 및 부대행사를 참관하며 흐름을 파악하고 각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 셋째, 각 NGO가 독자적으로 병렬행사(Parallel Event)를 기획하

고 개최해 자신들의 활동과 이슈를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YWCA는 이 모든 방식으로 CSW69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로, 한국YWCA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주제로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 성명서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fGBV)’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YWCA는 UN과 각국 정부가 기술을 이용한 젠더폭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젠더폭력을 근절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 한국YWCA는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을 주제로 병렬 행사를 직접 기획·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세계YWCA의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각국의 현실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적 연대의 장이 되었다. 행사는 박지인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기획국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박 국장은 한국의 N번방 사건부터 최근 딥페이크 범죄까지,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흐름과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범죄가 젠더적 관점에서 얼마나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인지를 짚었다. 이어 한국YWCA가 진행해온 대응 활동과 캠페인 사례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기술과 법제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YWCA의 Nanako Tojo 활동가는 일본 내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전했다. 일본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루밍 범죄와 디지털 성폭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일본YWCA가 '안전한 공간 만들기'와 인권 교육, 법제도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캐나다YWCA의 Amanda Arella 활동가는 캐나다 여성 청년들의 온라인 혐오 경험을 공유했다. 16-30세 여성의 44%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와 함께, 캐나다YWCA의 대표 캠페인 #BLOCK_HATE 활동을 소개했다. 'Digital Wellbeing(디지털 웰빙)'과 'Digital Allyship & Cultures of care(디지털 공간에서의 연대와 배려 문화)' Policy Recommendation(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 현장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세계YWCA의 Dr. Suchi Gaur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세계적 관점과 각국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글로벌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행사 마지막에는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의 목소리와 상징

을 깃발에 적어 함께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것을 소개하며, 기술매개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YWCA 대표단은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와 병렬행사에 참여했다. 첫째 날에는 세계YWCA 주관 행사에서 각국 젊은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뉴질랜드YWCA, 룩셈부르크 정부와 유럽평의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에서는 기술로 인한 여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고민했다. 둘째 날에는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정책을 들었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지켜보았다. 같은 날 저녁, 일본YWCA 대표단을 한국YWCA 대표단 숙소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나누며 양국 청년 활동가들의 고민과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세계YWCA 초청 조찬모임에 참석해 '라이즈업



Rise Up'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 등과 교류했다. 이어 팔레스타인YWCA의 병렬행사에서 현지 여성들의 절박한 현실과 목소리를 들었고, 아시아 LGBTQ+ 운동 현황을 공유하는 병렬행사도 참여해 보다 넓은 시야로 연대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넷째 날, 일본YWCA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관련 병렬행사에서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겪는 미군에 의한 성폭력, 군사사고,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들었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일본YWCA의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저녁에는 세계YWCA와 북미YWCA들이 함께 주관한 리셉션에서 각국 YWCA 활동가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다섯째 날에는 아시아-퍼시픽 YWCA 간담회에 참여해 아태 지역 YWCA들과 긴밀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미국 내 한인YWCA인 퀸즈YWCA를 방문해 활동을 공유하고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끈끈한 연대를 확인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 대표단은 뉴욕의 9.11 테러 메모리얼을 찾아 참사의 현장을 돌아보았다. 두 빌딩 자리에 만들어진 거대한 폭포와 깊은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실의 공간이자 기억의 공간으로서,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상징했다. 이러한 기억과 추모의 공간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다는 깊은 울림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번 CSW69 참여는 한국YWCA 대표단에게 많은 성찰과 배움을 안겨주었다. 각국의 젊은 여성 활동가들이 자신과 조직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국제사회 속에서 당당히 자리 잡는 모습은 큰 자극이 되었다. 우리 역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활동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도 한국YWCA는 세계YWCA와 함께 국제적 연대의 흐름 속에서 성평등과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국제적인 공론장에서 경험적 이슈를 제기하는 여성들

+ 박지인 대학청년YWCA 기획국장·부천YWCA

2025년 3월 10일, 뉴욕 UN 본부에서 제 69차 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3월 10일에서 16일까지, 총 6일 동안 행사에 참여하며 UN 회의, 패러럴 이벤트, 사이드 이벤트, 그리고 세계 각국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UN 행사를 체험해 보기 전 멀리서 바라보았던 UN은, 국제적인 공론장으로서 다양한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과 활동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 글로벌 이슈를 공론화하고, 국가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연대를 구축해내는 곳이었다. 또한, UN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청년 활동가인 내게 활동의 방향성을 제공해주었다. 이렇게, 나는 거시적 차원의 담론을 다루고 생산하며 변화를 이끌어가는 UN에 커다란 매력을 느껴왔다.

그러나, 여성지위위원회 CSW 행사를 통해 체험한 UN은 기존의 생각과 사뭇 달랐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UN은, 글로벌 이슈를 공론화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논의에서 시민사회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패러럴 이벤트를 직접 개최하고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나 소통하며, 고민에 대한 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기술매개 젠더폭력 TFGBV 라는 주제로 패러럴 이벤트를 개최하며,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TFGBV와 사회 문제'라는 발표를 맡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TFGBV,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심각성과 위험성 문



제의 해결을 위해 주목해야 할 의제들, 그리고 한국 YWCA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활동가들과 TfGBV 문제를 논의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하지만,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에서는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나이지리아 활동가와의 대화가 인상 깊었다. TfGBV는 나이지리아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TfGBV의 예방과 정책 제정을 위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TfGBV와 같은 문제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인 문제이며, 국제적인 공론장에서 활발히 논의와 대응을 이끌어내야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이지리아 활동가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받으며, 사회적 이슈

를 다루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연대와 공론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제 69차 여성지위위원회 참가를 통해, 나는 시민사회가 단순히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론장에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을 배웠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공론장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연대와 개입이 어떻게 기존의 질서에 변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국제적 교류와 연대 통해 함께 하기

+ 김윤희 대학청년YWCA 소통국장 · 대전YWCA

경험

이번 CSW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국제적인 회의에 참가하여 그들의 에티켓을 배우고 또한 직접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경험을 통

해 역량을 강화하고 싶었다. 특히 병렬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제에 대하여 찾아보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과정, CSW의 주제에 대한 공부 등 지식적인 측면의 성장, 실제



로 행사를 진행하며 경험적인 성장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단체의 세션에 참가하여 그들의 발표를 보고 그들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 색다른 경험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법 등 주제에 적합한 발표 방식과 발표에 대한 자세, 태도를 눈 앞에서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교류


이번 CSW에 참가하면서 모든 세션 및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 바로 사람들과의 교류다. 어느 행사에 참가하든 교류는 꼭 진행되었다. 세계 YWCA 모임, 일본YWCA와의 교류를 비롯하여 세션에서도 교류가 이어졌다. 자신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서로 관심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를 주최하는 이벤트도 있었으며 자기소개를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교류가 진행되는 이벤트도 있었다.

질문을 통하여 발표자와의 교류가 진행되었으며 발표가 끝난 후 토의로 교류가 진행되는 이벤트도 있었다. 우리의 발표를 인상 깊게 들었던 참가자가 교류를 제안한 적도 있으며 발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교류를 제안한 참가자도 있었다. 교류를 통하여 서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이처럼 CSW는 서로의 발표를 듣는 것과 동시에 네트워킹을 통하여 활발히 교류를 하는 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성찰

이번 CSW의 모든 발표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발표자들의 자신감이다.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듣는 청중에게도 느껴져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어느 활동을 하든 가끔씩은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표자들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로 가치있는 것이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대학청년YWCA의 활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CSW를 참여하면서 YWCA에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시각을 다양화하고 네트워킹을 하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YWCA가 가진 많은 장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에 청년들이 관심을 갖기도 힘들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 CSW에 또 청년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꼭 참가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민주주의 회복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 행진’(이하 ‘315탈핵 집회’)이 3월 15일(토) 오후 2시, 경복궁 서쪽 서십자각터 앞 거리에서 진행됐다.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맞아 탈핵기후환경·종교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탄핵하고 에너지민주주의와 기후정의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YWCA를 비롯해 약 500여 명이 함께했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회원YWCA(고양, 광양, 남양주, 목포, 부천, 수원, 안산, 안양과천군포의왕, 의정부)와 연합회 활동가 등 75여 명이 참여해 YWCA 파란 조끼를 입고, 노란 손장갑에 ‘탈핵, 생명, 정의, 평화, 탄핵’ 등의 피켓을 붙이며 탈핵의 염원을 담았다.

집회는 5대 중단 기도회를 시작으로 기후환경단체의 발언과 공동퍼포먼스, 공연 등이 이어졌다. 삼척, 밀양, 전북 등 지역주민들도 함께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송전탑 건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선언문은 배슬기(기후비상행동), 김수진(한국YWCA연합회), 김영정(안산환경운동연합)이 315탈핵집회 참가자들을 대표해 돌아가며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기억하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인 핵정책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 탈핵 사회 실현을 한목소리로 강하게 요구했다. 집회 첫 발언으로는 탈핵시민행동 이영경 집행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민주적이지도, 생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



은 핵 전기에서 벗어나야 함”을 주장하며, “민주주의와 탈핵을 열고, 새봄, 새 세상까지 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자”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어 종교환경회의 양기석 신부는 “윤석열 정부와 그들이 추진하는 핵진흥정책은 우리 사회의 탐욕을 부채질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핵발전소 반대 투쟁을 해온 주민들의 발언이 나왔다.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하태성 대표는 “3번이나 핵발전소 시설을 백지화” 시킨 삼척 주민들의 투쟁 경험을 전하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핵사고의 위험을 무시한 채 핵확대 정책에 여념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뒤이어 문지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은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사고는 30년이 넘는 노후 핵발전소에서 발생했고, 가장 먼저 폭발한 발전소가 바로 수명 연장된 곳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고준위특별법에 대해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살림연합 환경활동회의 이윤진 의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금까지 11차례나 방류했고, 앞으로 최소 30년간 계속될 예정이지만 언제 멈출지는 알 수 없고”,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며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퍼져 생태계에 축적되면 결국 우리의 먹거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참가자들을 대표해 선언문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 행진 선언문

오늘 우리는 14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리고, 핵발전의 무도함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회복과 탈핵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다. 이 중에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세 번의 중대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인류는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목숨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는 윤석열은 핵발전 참사의 교훈도 부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최강국건설'이라 어리석은 정책을 내세웠다.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로 인해 32기, SMR(소형모듈원전)까지 포함하면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지금도 국토 면적대비 핵발전소 밀집도 1위, 핵발전소 주변 인구 세계 1위의 핵사고 위험도 최고의 나라이다. 지난해 건설 허가를 받은 올신 신한울 3,4호기가 준공되면 세계 최대 다수호기 핵발전소 단지를 운영하는 나라로 핵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과 핵산업계는 '원자력을 값싸고, 안전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알맞은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은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장 비싼 전원이다. 핵산업계는 원전 2기 건설에 약 10조 원, 건설 기간 14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 기간 역시 20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게다가 안전 대책 비용,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비용, 폐로 비용, 사고 발생 대책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핵발전의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진다. 핵발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가동할 가치가 없다.

우리 사회는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려는 대다수의 시민과 과거의 망령을 불들리는 일부 세력의 대처로 혼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이 만든 핵진흥 정책은, 불법 계엄 만크이나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이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등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를 위험으로 내몰았다.

과거는 현재를 돕는다. 우리가 과거의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윤석열의 독선적인 핵폭주 정책을 폐기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핵없는 사회를 만들 것임을 선언한다.

탈핵이 민주주의다. 탈핵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자.

탈핵이 정의다.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실현하자.

탈핵이 생명안전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환 이뤄내자.

우리가 만드는 세계, 민주주의 회복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 평화, 화해, 협력의 시대로 손 맞잡고 함께 가자

2025년 3월 15일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참가자 일동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연대의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2025 YWCA 신입회장교육이 2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YWCA 신입회장 교육은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회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필수교육으로 총 16명의 회원YWCA 신입회장(고양, 광주, 김해, 논산, 부산, 수원, 안산, 안동, 원주, 인천, 전주, 춘천, 창원, 청주, 통영, 파주 Y)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YWCA 목적과 사명을 재확인하도록 새로 발간한 <연대하는 용기>의 첫 선을 보이고 강의도 진행하였다. 여는 예배에 이어 16명의 신입회장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 나눔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강의는 <연대하는 용기> 제1부 저자인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가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을 강의하였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와 생명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YWCA와 회장을 부르셨음을 강조했다. 또한 YWCA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통치)를 이루어 가는 에큐메니컬 운동체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송록희 연합회 국장은 'YWCA 운영-정관 및 제 규정 이해' 강의를 통해 신입회장들이 정관과 규정에 따라 거버넌스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대하는 용기> 제3부 저자 유성희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국YWCA 100년의 여정'을 주제로 창립 103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의 역사를 통한 사명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실 신입회장들을 격려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조은영 연합회 회장이 '하나님의 동역자, YWCA 회장의 사명-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두 세션으로 나누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운동의 기억과 기대', '회원Y가 이를 일과 연합회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소그룹 논의를 통해, 회원Y가 회원감소, 운동방식의 변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YWCA가 지지 않고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이어나가야 함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였다.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했지만 연대에서 주는 용기에 감명 받았다"

"저만 걱정되고 두려운 게 아니었음을 들으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연대의 강한 힘을 느꼈다"

"YWCA 목적문 안에 Y가 나아갈 길이 있기에 목적문을 실천하는 Y, 그런 리더로서 회원들과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3년의 역사, 선배들의 헌신과 정신을 본받아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협력으로 사명을 이어가겠다"

정의와 평화와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연대하는 용기'를 보여준 신입회장들이 계시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나라 정의, 평화, 생명을 꿈꾸며

김미숙 (사)안산YWCA 회장

안산YWCA를 만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깨우침을 얻었다. 이후 탈핵, 성평등, 인권, 청소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배움의 자리에 함께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했던 지난 20년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12.3계엄, 핵발전 중심의 비민주적 에너지 정책, 한미군사훈련 중 포천 민간지역 오폐수 등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이 땅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더 엄청난 대한민국의 상황은 날마다 분노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때문에 안산YWCA의 회장이 된 후 수많은 지인들로부터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듣고도 선뜻 고맙다는 답례인사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신임회장연수는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상을 읽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의 지침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 땅에 YWCA가 세워지고 103년이라는 세월동안 정의와 평화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마다 자랑스러운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온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YWCA의 성찰과 비전이 장운재 이화여대 교수, 유성희 전 YWCA연합회 상임이사, 이숙진·이명신 Y아카데미 연구위원의 공저로 '연대하는 용기'에 담겨 출판되었다.

연수 첫 시간을 맡은 장운재 교수는 '연대하는 용기' 1부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제로 강연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삼은 YWCA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에큐메니컬 운동체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겨 주었다. 2025년 안산YWCA의 부회장으로 재임 시, 연합

회에서 진행한 회장단 연수에 참여했을 때 탈핵기후생명운동을 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YWCA의 요청을 받아 설교해주셨던 분이 바로 이화여대 교목이었던 장운재 교수였다. 요청에 충실히 성경을 근거로 왜 탈핵을 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넘어서, 우주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체인 YWC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 주셨다.

유성희 전 YWCA연합회 상임이사는 '연대하는 용기' 3부, '청년시민 하나님 나라를 잇다'라는 주제로 한국YWCA 100년의 여정을 강연했다. 좋은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한다면, 기독교 안에서 유토피아는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변화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은 혼란하고 불안한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하기보다 하나라도 더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YWCA의 정관과 제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정제된 언어로 전달해 주신 송록희 국장과 회장의 사명 그리고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앞으로 YWCA가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각 지역에서 오신 신임회장들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신 조은영 연합회 회장과 함께 한 시간도 참 좋았다.

연수에 참여하며 회장의 역할이 가볍지 않음을 알고 어깨가 무겁지만, 이 자리가 마냥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자리임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세상을 위해 맡겨진 일을 마다하지 않는 담대함을 날마다 구하며 미약하지만 늘 깨어 기도하고 행동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YWCA 회원으로서 작은 천국을 경험한 시간

김진환 (사)김해YWCA 회장

1월 20일 회장 취임했으면서도 나는 와이우먼이 아니었다. 10여 년간 와이에 드나들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항상 먼저였고, 차선이었던 와이의 이사직에서 회장이란 직책을 맡게 되면서 버겁게 느껴졌지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으니 감당할 힘과 지혜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한 달의 시간을 보냈다. 신임회장 교육이 1박2일, 그것도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라는 공문서를 받고 몸도 안 좋은데 와이 회장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신임회장 교육을 참석하게 되었다. 명동거리의 참 많이 변해있었고, 나이 60이 넘어 교육을 받기 위해 그 길을 30여 년 만에 걸자니 감회가 새로웠다. 마음을 다잡으며 걷는다.

와이 연합회에 들어서면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환대해 주는 모습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았다. 우리 김해 와이도 이런 분위기가기를 소망했다. 일정표를 받아보고는 큰 걱정이 앞섰다. 지금도 놓고 싶은데 (2주전 넘어서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다. 누워서 쉬는 게 치료라고 했다.) 휴게시간도 짧아 걱정도 되고 그래도 어찌 되겠지 하고 앉아 예배로 시작하여 강의 세 개와 두 개의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연대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장운재 목사님 강연에 긴장되었던 몸이 은혜로 확 풀리는 느낌이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방향성에 관하여 확고함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워크숍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의 강연자답게 조은영 회장이 와이 회장의 사명과 역할, 책임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한 맥을 짚어 주셨다. 와이 회장으로서 더 강한 책임감도 일깨워주셨고, 또 자긍심까지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산재해 있는 김해와이를 생각하니 마음은 여전히 답답

했다. 정관 및 제규정에 관련하여 알아듣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신 시간, 한국YWCA 100년의 여정을 능숙하게 풀어내 와이우먼, 와이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시간도 참 좋았다.

잠을 내어 정기총회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도 갖는다. 우리 와이 행사에서 예배는 빼놓을 수 없다. 더구나 귀한 예배에 찬양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찬양을 신임 회장들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남달랐다. 아름다운 음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 헌신이 깊이 우러나는 찬양을 만들어 갔다.

시간 시간이 의미있고, 감사가 있어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페이지명동의 라운딩도 잊을 수 없다. 여성이 있는 곳이어서일까, 곳곳이 실용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었고, 기도실 역시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도실이 없었다면 와이 건물의 실증이 되지 못했을 것 같다. 역사관은 와이의 정체성을 잘 살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남산타워를 뒷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오픈된 옥상은 또다른 행복감을 가질 수 있었다. 여러 시간들을 통해 우리 김해 와이 이사님들도 이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김해에 내려가서 이 감동을 그대로 이사님들과 나누고 시간을 싶은 마음이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한국YWCA연합회 회장님 이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주도 연구로 YWCA운동의 내일을 찾다



2025년 1월 11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생명비전연구 프로젝트'의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YWCA 생명비전연구 프로젝트는 한국YWCA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의 정체성과 운동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기존의 전문가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운동의 당사자들이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를 시도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YWCA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하여 지역 중심의 운동,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등 핵심 이슈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까지 폭넓게 탐색하여 의미 있는 통찰을

얻고자 했다.

2024년 4월, 신학, NGO, 인력개발, 기후, 건강,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위원들이 모여 연구 주제를 논의했고, YWCA 운동의 방향성과 정체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 ① YWCA 지역운동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 ② 청소년 주도의 탈핵기후생명운동
 - ③ 여성 청년의 SNS 사용과 안녕감 및 취업 준비 활동
- 첫 번째 주제는 지역 법인화를 마친 50개 회원YWCA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주제는 YWCA의 청소년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탈핵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세 번째 주제는 여성 청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겪는 경험이 안녕감과 취업 준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 주제가 확정된 후, 연구에 함께할 시민 연구원을 공개 모집했다. 연구 주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비롯하여, 평소에 연구 참여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전, YWCA 활동에 대한 호기심 등 다양한 이유로 총 20명의 연구원이 참여했다. 이 중 대다수는 청년과 청소년이었다. 연구위원과 연구원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별로 연구팀을 구성해 약 8차례의 연구 모임을 진행하며, 연구 기획부터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한 청소년 연구원은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설문조사와 보고서에 반영되는 과정이 매우 신

기하고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을 직접 검토하면서,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 참여를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더욱 공부하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환경 문제를 깊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참여 경험을 통해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문제의식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생명비전연구 프로젝트는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인 활동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YWCA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연구 1 YWCA 지역운동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시민운동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YWCA는 지난 10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운동을 펼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YWCA가 앞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회원 단체들의 역량과 여건을 분석하고자 진행되었다.

전국 14개 지역의 YWCA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YWCA의 운동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의 핵심 실무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운동 정책의 수립 과정, 운동 기획 능력과 자원 확보 현황, 지역 운동의 성공 및 실패 사례,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설문에서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개별 인터뷰를 추가 진행하였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YWCA가 처한 현실과 운동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회원YWCA들은 연합회에서 제시하는 공통의 운동 정책을 따르면서도,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춰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일부 지역은 중장기적인 비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풀뿌리 여성 회원 중심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 운동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회원YWCA 중에서는 자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운동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조직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규모가 큰 도시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중소 도시의 경우 재정과 활동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동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다수의 회원YWCA는 실무 인력 부족과 활동가의 역량 부족이 운동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회원YWCA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지역운동을 위한 강한 의

지와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지역운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무인력의 전문성을 키우고,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SNS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 2 청소년 주도의 탈핵기후생명운동



기후위기와 핵발전 문제는 청소년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잘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을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 운동의 주체로 보고, 이들이 기후위기와 핵발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체감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주도적으로 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는 전국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감정적 반응, 개인적 실천, 탈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이 상상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98.8%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을 인간의 지나친 산업화와 소비 활동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해 위기감과 불안감도 자주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더 높은 부정적 감정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개인적 실천에 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 과정과 같은 조직적이고 공적인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정책이나 캠페인 참여의 기회가 적고,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또한 학업과 입시 등으로 인해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많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

는 현실을 잘 드러낸다.

탈핵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방사능 오염수나 식품 안전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장기적인 영향, 그리고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핵발전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탈핵 관련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실천을 넘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지원하는 일이다. 학교 교육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탈핵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어질 때,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연구 3 여성 청년의 SNS 사용과 안녕감 및 취업 준비 활동: 아시아 3개국(한국, 대만, 인도네시아)을 중심으로



SNS는 여성 청년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소통 도구가 되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획득과 인맥 형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공간이 되어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특히 여성 청년의 안녕감이 주요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성 청년들이 SNS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경제 참여와 건강한 삶을 독려하고자 했다. 따라서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연구진이 함께하여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연구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구직 중이거나 직장 경력 3년 미만의 20~34세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에서는 SNS 사용 방식과 수준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정도, 심리적 안녕감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세 국가 간 여성 청년들이 경험하는 차이를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여성 청년들은 SNS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상적인 타인의 삶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직업 탐색 과정에서도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상향 비교를 자주 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SNS 사용 방식과 직업 가치관에 따라 이러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SNS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상향 비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체성 혼란과 직업 탐색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으며, 일을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여기는 경우 SNS 사용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도네시아 여성 청년들은 SNS 사용보다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더 큰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족한 취업 기회로 인해, 이들은 직업 탐색 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았다. 특히, 취업 관련 정보나 멘토링 기회가 부족하여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 탐색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여성 청년들이 직업 탐색 과정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과 멘토링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만의 경우, 확보한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SNS 사용과 직업 탐색 불확실성 모두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만 여성 청년들의 SNS 사용 패턴과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여성 청년들이 SNS를 단순한 비교의 공간이 아닌 자기 성장과 진로 개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별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멘토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여성 청년들에게는 자기 정체성과 내재적 가치를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인도네시아 여성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정보와 멘토링 제공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SNS 사용 방식을 개선하여 여성 청년들의 구직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여성 정책, 청년 정책에 있어서 중요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YWCA

2025 Y-틴 전국협의회, 새로운 시작!



2025 Y-틴 전국협의회가 2025년 1월 14일~15일 1박 2일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 되었다. 15개 회원 YWCA(남원,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울, 수원, 순천, 안산, 여수, 울산, 인천, 전주, 충주)의 Y-틴과 실무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Y-틴 전국협의회 회원들은 서로간의 연대망을 형성하고 2024년 운동을 정리하며 2025년 운동의 기틀을 다졌다.

첫날은 박윤애 Y-틴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YWCA의 중심가치인 'Young'의 청소년성을 강조하며 Y-틴이 YWCA 운동의 주체임을 분명히 함으로 참석자들의 열정을 드높였다. 이어서 김민선(서부지역 회장)과 김여진(동부지역 회장)이 주도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조원 이름 외우기 게임과 '나는 누구일까요' 정보 맞추기 게임을 통해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 설명을 위한 깃발 만들기 게임에서는 웃음과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활동 보고 시간에는 각 지역의 2024년 활동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고 참석자들은 '인상 깊은 활동을 한 지역'과 '나랑 비슷한 활동을 한 지역'을 찾아 미션 빙고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이어진 시간에는 2025년 Y-틴 중점 운동 선정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이은우(전국협의회 회장)은 Y-틴의 역사와 이제까지의 중점 운동 주제를 설명하며, 지난 4년간 진행한 '기후위기' 주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 역시 나누었다. 이어, 이한음(중부지역 회장)은 2025년 중점 운동 주제로 '일본군 성노예제'를 강연을 통해 제안하였고, 강경화(전국협의회 부회장)는 본 주제로 진행할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는 워크숍을 이끌었다. 참석자들은 '역사 바로 알기', '소녀상 지키기 캠페인', '팝업 미술 프로젝트' 등 세부 활동을 제안하며 새로운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나누었다.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임사랑 (대전YWCA)

안녕하세요, 2025년 전국협의회 회장 임사랑입니다. 저는 2021년 키다리학교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며 처음 Y-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4년 1년 동안, 대전Y 회장과 봉사동아리 운영, 드림십 등 Y-틴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활동들을 하며 책임감을 알게 되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혼자 실천하기 꺼려던 일들을 Y-틴을 통해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Y-틴은 저에게 실행력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YWCA를 종종 드나들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친숙한 기관이었지만, Y-틴 전국협의회가 정확히 어떤 활동들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활동 후 느낀 전국협의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25년도 저는 "기회는 도전한 후에 생긴다"라는 좌우명을 정하고 무엇이든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더 많은 도전과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 나가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틴 전국협의회 부회장

강경화 (대구YWCA)

안녕하세요, 2025 Y-틴 전국협의회 부회장 강경화입니다. 2024 Y-틴 전국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1년 동안 전국협의회, 전국회원대회를 진행하고 수요시위에 참여하는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Y-틴 연합임원은 Y-틴을 대표한 다가 아닌 'Y-틴 회원들을 더욱 빛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친구의 추천으로 Y-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는, Y-틴이 단지 기후를 위해 활동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탈핵 시위,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수요시위 및 탄핵 시위 등에 참가하며 Y-틴은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회 문제라면 무엇이든 함께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능한 단체에서 제가 전국협의회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께 '나무' 같은 부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나무는 자라나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고, 맛있는 열매를 내주어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어주며, 베어지고 나서도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고맙고 다재다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Y-틴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여러분들과 더욱 열심히 소통하는 전국협의회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날에는 전국협의회 회의가 진행되어 2025년도 Y-틴 중점 운동으로 '일본군 성노예제'가 채택되었다. 임사랑(대전YWCA)이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강경화(대구YWCA)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회칙 개정이 이루어져 협의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역별 협의회는 4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동부지역 회장과 부회장으로 박채은(울산YWCA), 박성현(대구YWCA)이, 북부지역 회장과 부회장으로 방시은(안산YWCA), 고은희(안산YWCA)가, 서부지역 회장과 부회장으로 임태린(전주YWCA), 이다혜(순천YWCA)가 선출되었다. 중부지역은 지역협의회를 통해 회장 신다인(대전

YWCA), 부회장 홍하운(논산YWCA)이 선출되었다. 이어진 아-취임식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달은 예배로 마무리하며, 모든 참석자들은 함께한 시간의 소중한 경험과 연대감을 고백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번 Y-틴 전국협의회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새로운 중점 운동 주제를 선정한 것은 Y-틴의 발전과 연대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

YWCA 청년조직 및 청년운동 내실화



2025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총회가 1월 18일(토)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대전, 부천, 서울, 수원 총 4개의 지역에서 정대표 8명, 방청 3명, 회원 YWCA 실무자 3명, 연합회 실무자 3명 총 17명이 참여했다. 2024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임원들은 연합회에 일찍부터 도착해 연합회를 처음 방문하는 대학·청년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번 전국협의회의 시작은 박은실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막을 올렸다. 박은실 총장은 미리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한국YWCA연합회 회관 곳곳을 소개한 후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YWCA 운동에 함께 하는 청년들을 진

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남겼다. 이어서 서다미 청년 부회장이 한국YWCA 청년부회장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YWCA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참가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후 이예림 회장이 진행하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통해 처음보는 회원들 서로가 얼굴을 보며 이름을 익히고,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전국협의회에서도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가 청년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특강이 준비됐다. 한국YWCA연합회 글로벌청년네트워크팀 김수진 활동가가 ‘YWCA 기독교청년운동과 시대정신’에 대해 강의했다. 김수진 활동가는 “123 내란사태는 우리에게 최악의 연말을 선

물했다”고 말하며 우리가 왜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격동의 세월 속 YWCA가 가졌던 시대정신에 대해 소개했다. YWCA 기독교청년운동과 시대정신을 이어서 설명하며 2024년 12월, 촛불대신 응원봉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온 2030여성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늘 그곳에 있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YWCA 청년들은 어떠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했다.

특강 이후 한국YWCA연합회 글로벌청년네트워크팀 손지수 활동가가 준비한 ‘YWCA 청년운동 상상하기’ 워크숍이 진행됐다. 앞서 들은 특강을 되새기며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YWCA운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회원들은 각자 생각의 시간을 가진 뒤 조별로 우리가 꿈꾸는 YWCA운동을 한 문장으로 완성했다. 회원들은 YWCA를 ‘협동적인 사람들이 연대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대를 통하여 성장하는 곳’, ‘YWCA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모두에게 평등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기에 모두를 환영하고 연대한다. 세상의 위로와 위안, 소망과 희망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YWCA는 사공이 많아 고민의 연속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운 곳이다.’라고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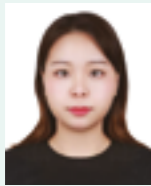
이예림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총회가 시작됐다. 총회의 첫 순서인 전 회의록 낭독을 통과하고, 박지인 기획국장이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활동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김수진 활동가가 2024년 한국YWCA연합회 청년운동팀 활동보고로 제21차 한·일YWCA청년협의회, 2024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YWCA 청년정책연구TF, 2024 YWCA 청년조직 및 운영 현황조사 실



시를 차례로 설명했다. 본격적인 안건토의의 첫 순서로 2025년을 이끌 대학·청년 YWCA전국협의회 임원 선출을 진행했다. 회장은 2년 임기로 올해는 선출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기획국장과 소통국장만 선출했다. 기획국장으로는 부천YWCA 박지인 청년이, 소통국장으로는 대전YWCA 김륜희 청년이 선출됐다. 이어 두번째 안건인 2025년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전국운동주제 채택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4년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이 전국운동주제 제안서를 낭독했다. 과거에는 사회운동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던 청년들이 오늘날에는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청년들에게는 ‘삶의 유지’ 자체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내실화를 통해 YWCA 청년운동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전국협의회 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는 YWCA 청년조직과 청년운동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대학·청년 YWCA전국협의회 전국운동주제로 <YWCA 청년조직 및 청년운동 내실화>를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함께하게 된 세 명의 대학·청년 YWCA전국협의회 임원들의 시너지가 더욱 기대되는 한 해이다. 2025년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하는 첫 운영위원회는 3월 중 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된다.

키다리학교 2024 우리가 뿌린 씨앗, 함께 성장하는 중

YWCA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 실천



안녕하세요. 2025년 한국 YWCA 대학 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 이예림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저를 믿고 회장직을 맡겨주신 대학·청년Y 임원진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회장직을 맡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동시에 책임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2015년 처음 YWCA와 인연을 맺은 후, Y-틴 활동을 시작으로 대학·청년Y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YWCA는 저에게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에서 쌓은 경험과 만난 소중한 사람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회장으로 활동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여러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고,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큰 가치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 너무 뜻깊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앞으로의 저의 미래에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대학·청년Y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힘있게 내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청년Y가 보다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YWCA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다른 임원분들과 함께라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대학·청년Y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항상 청년을 생각해주고 환영해주는 YWCA



안녕하세요. 2025년 한국 YWCA 대학 청년YWCA 소통국장으로 당선된 대전 Y 김민희입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대학·청년YWCA의 소통국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신 기회 저를 믿고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2018년 대전YWCA 대학·청년YWCA에서 진행하는 와락스테프의 일일스테프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대학·청년YWCA 회원등록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6년이 넘는 시간동안 YWCA의 청년 회원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회원, 부협의 회장, 협의회장, 운영위원, 소통국장까지 활동을 하며 지역YWCA, 전국YWCA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의 회원을 만나 소통하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6년동안 YWCA의 청년회원으로서 참여했던 프로그램

과 임원으로써의 경험은 저에게 공동체, 리더십 등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청년YWCA의 활동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대학·청년YWCA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의미미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임원분들과 함께 대학·청년YWCA의 활동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대학·청년YWCA의 활동이 유지될 수 있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청년을 생각해주고 환영해주는 YWCA처럼 열린 마음으로 대학·청년YWCA 회원들과 소통하며 2025년 대학·청년YWCA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더욱 성장하는 대학·청년YWCA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2월 15일(토) 오후 1시, 한국YWCA연합회에서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이 7개 회원YWCA(대전, 부산, 서울, 순천, 안산, 울산, 창원) 키다리 청소년과 키썸(자원활동가), 크썸(실무활동가)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키다리학교 공동체는 2024년 한 해 동안 뿌린 씨앗이 어떻게 성장과 변화의 열매가 되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노하연 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한 해 동안 뿌린 변화의 씨앗들이 크고 작은 방식으로 자라고 있다"며,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듯 청소년들은 키다리학교에서 직접 경험한 활동을 발표하며, 작은 씨앗이 쌓여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나누었다.

대전YWCA는 빗물 저금통 꾸미기, 페이스페인팅, 벽화 만들기 등을 통해 예술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경험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스스로 필요한 곳을 찾아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배웠다. 부산YWCA는 4년의 키다리 활동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서울YWCA는 기후모의재판을 진행하며 기후위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다

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을 쌓았다.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도 넓혔다. 순천Y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순천만 생태계 탐조활동을 진행했다. 개인을 넘어 지역 주민과 협력하며, 공동체가 함께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배웠다. 안산Y 역시 지역사회와 연대했다. 안산갈대습지공원과 416기억순례길 탐방을 진행하며,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울산YWCA는 부산 국제사진제에서 다양한 사진 작품을 감상한 후,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엽서를 제작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예술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다. 창원Y는 기획팀과 영상팀을 나눠 활동하며 기후보드게임을 제작했다. 분담과 신뢰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날 행사에는 각 지역에서 진행한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도 마련되었다. 울산YWCA 청소년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제작한 엽서, 서울YWCA의 기후모의재판 대본, 창원Y의 기후보드게임이 전시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청주YWCA는 활동 보고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며,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각 지역의 청소년들은 활동 피드백 시간을 통해 발표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나누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서로의

키다리학교는 YWCA에서 운영하는 토요대안학교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자치와 실천을 중심으로 '자기 결정권', '공동체 의식', '사회 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더 큰 도전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 키다리학교의 미래가 기대된다.



① 울산YWCA 키다리학교의 엽서 전시. ② 울산YWCA 키다리는 부산 국제사진제에 참여했다.
③ 서울YWCA 키캠프의 소감 발표. ④ 함께 성장해 가는 키다리학교 공동체

경험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신의 활동에 적용하고 싶은 점 역시 공유하며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이 과정을 통해 ‘활동나눔’은 단순한 활동 정리의 시간이 아닌 스스로의 성장을 점검하고 더 나은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 나아가 1년을 돌아보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은 2024년 키다리학교가 남긴 것을 ‘책임감과 실행

력, ‘유대감, ‘가능성’을 꼽으며, 2025년에는 ‘숏폼 환경 캠페인 제작’, ‘생물다양성 탐사’, ‘적극적인 연대’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자’, ‘힘들면 쉬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계속 나아가자!’는 다짐으로 마무리된 소감 나눔은 청소년들의 연대와 실천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성유정 (사)울산YWCA 간사

울산YWCA 키다리학교를 시작하다.
‘키우자 Y다운 리더’ 키다리학교는 기존 공교육에서 청소년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키다리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치와 실천이며 키다리학교의 교육과정, 장소 모든 것이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 운영은 정의, 평화, 생명의 세 축면을 고려하여 키다리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한 활동 주제와 계획에 따라 이뤄지며 연 1회 지역별 연대모임도 운영된다. 2024년 키다리학교 활동은 울산제일교회 기독교청소년 미디어 팀과 함께하게 되면서 좋은 시작을 알렸다.

키다리청소년들이 이끌어가는 키다리학교
키다리청소년들에게 리더, 서기 등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함으로써 진행속도나 결과물 도출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큰 비중을 두었다. 키다리청소년들은 아래와 같이 활동을 결의했다.

① **식물영상일지**
키다리청소년들이 고른 식물들을 직접 키워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짝은 영상들로 일지를 제작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생명’과 연관이 있으며, 식물을 기르는 일은 꾸준히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책임감을 배우고 생명체를 돌보는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② **엽서제작**
키다리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세상 속 정의, 평화, 생명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후 해당 사진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나타내는 성경말씀을 골라 사진에 함께 넣어 엽서를 제작하는 활동이다. 본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의, 평화, 생명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가고 엽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성경말씀을 함께 넣음으로써 C(Christian) 정체성을 함께 녹여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엽서제작을 위한 사전활동으로 부산국제사진제 견학도 다녀오며 다양한 작품관람을 통해 새로운 통찰과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사진을 통한 다양한 이야기방식과 시각적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활동나눔의 시간
한해의 활동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키다리학교 목적에 맞게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이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운영진(키캠, 크캠)은 청소년의 시선과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가는 법을, 청소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을 배우며 그 안에 서로의 성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주제적 성장을 위해, ‘키우자 Y다운 리더’

키캠 하민화 (사)창원YWCA 간사

창원YWCA 키다리학교 활동은 인준식(입학식)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준식은 중요한 날이다. 인준식을 위한 사전모임을 통해 인준식 순서, 내용, 진행 역할 분담, 부모님 초청 여부 등 상세한 부분들을 키다리 친구들이 직접 기획한다. 인준식 진행 후 4월 첫 모임에는 신입생과 기존 키다리들의 라포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2024년에는 이 시간에 활동 주제(환경과 기후위기)를 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환경과 기후위기’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약자지킬 토론 끝에 ①지역 수변공원 생태 탐방, ②기후위기 보드게임 제작을 주요 활동으로 계획했다. 그리고 자신의 특기와 관심사에 맞는 부서(기획팀/촬영팀/제작팀)로 나누어 그 부서에서 팀의 목적에 맞게 각자 역할 분담을 했다.

2024년 5월과 10월, 수변 공원 탐방 활동을 계획하면서도 기후위기를 생각하며 활동 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 미션을 만들고, 활동 후 점심 메뉴를 선정하고, 모든 키다리들을 함께 참여시킬 구체적인 홍보 계획도 세웠다. 이러한 탄탄한 사전 논의 속에 키다리들은 계획된 현장 탐방을 실시했고, 탄소중립을 위해 공원에 비치된 자전거를 타고 누비며 계절 식물, 곤충 등 자연 생태계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체험과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의 소중함도 인식했다.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은 ‘기후위기 대응 보드게임’ 제작 활동을 진행했다. 게임의 룰부터 퀴즈, 형태, 요소 등을 키다리들이 직접 회의를 통해 기획하고, 만들어 다른 부서 키다리까지 공유했다. 이때, 보드게임 제작에 필요했던 환경 퀴즈(OX, 주관식 등)는 키다리들이 직접 자료조사를 해서 만들었기에 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12월, 2024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 송년회를 진행했다. 학교와 학원이라는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 주변 공원에서 솔방울을 주워 내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솔방울 트리를 만들고, 한해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2025년의 목표를 트리 장식으로 표현해 보면서 마무리했다.

키다리들의 소감

“키다리학교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관심을 가지기 못했던 기후위기와 환경, 그리고 나 스스로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키다리 활동 초반에는, 월 1회지만 주말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이 힘들었고, 귀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이야기하고, 공부야 아닌 다른 즐거운 활동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키캠 소감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타인’이 아닌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키다리들에 의해 활동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어쩌면 나를 표현하고, 도전하는 습관이 필요할 듯 느껴졌습니다. 2024년 활동 나눔에서 자신의 의견까지 공유할 수 있는 키다리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아 너무나 뿌듯한 1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국, 시민사회 역할과 과제



2025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지난 3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사)서울YWCA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46개 회원YWCA 사무총장과 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은영 제2부회장 외 실무활동가들 총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여는 예배에서 정미현 목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살전 5:21)란 말씀으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선부른 판단과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을 것’을 설교했다.

인사와 소개 시간에는 권역별로 사무총장을 소개하였고 2025년도 신입사무총장 11명의 소개가 이어졌다. 전국사무총장들은 주제 강연에서 신진욱 교수(중앙대학교 사회

학과)의 ‘한국사회 진단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강의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 추이와 12.3 비상계엄의 역사적 의미, 극우 문제와 과시증화 경향을 진단하며 탄핵 국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회의에서는 ‘2024년 사무총장협의회비 보고’와 ‘2025년 조기대선 대응 한국YWCA 정책 제안’을 협의하였다. 공유 안전으로는 ‘2025년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 교육 진행’이 소개되었는데 YWCA 재구조화 이후 지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무책임자인 회원YWCA 사무총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총장 연차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것임을 설명했다. ‘회원YWCA 관련 규정 개정 진행 안내’ 순서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연합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회원YWCA



정관, 공천규정, 회원규정 등의 개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한국YWCA 연간 일정을 공유’ 하며 월례기도회와 범인사회, 사무총장 그룹별 역량 강화교육, 정책협의회 등 사무총장들이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일정을 소개하였고, 월별 세부일정을 통해서도 전국 규모의 중점운동 행사를 미리 알려 회원YWCA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인강원권연합의회에서 주관함으로써 개최됨을 알렸고 YWCA공동기도문으로 폐회하였다.

2025년 조기대선 대응 한국YWCA 정책 제안

한국YWCA는 12.3 계엄사태 후 우리사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사회 부문에서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가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한국YWCA 운동과 관련한 대선 정책 의제(안)를 마련하였다.

다가올 21대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청 속에서 탈핵기후, 여성, 평화 등의 운동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무너진 정의 평화 생명의 YWCA운동의 가치들을 세워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의제 작업은 내년(2026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통해 50개 회원YWCA가 속한 지역에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책제안에는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보건의료, 돌봄, 시민사회활성화 등 6개 부문에서 총18개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다.

향후, 정책의제는 회원YWCA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며, 각 대선 후보자 및 정당에 보내어 정책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탈핵기후생명 부문

목표	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 및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
정책 요구	① 성평등한 기후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국가젠더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당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 기후정책, 재난관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성주류화 원칙을 명문화하여,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정부부처 산하 또는 관련 부처 내에 성평등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기후정책 대응 협의체 내 젠더전문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재난약자(여성, 아동, 임산부,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를 포함시켜 정책의 실효성 검토 및 개선 체계 마련 성평등한 기후 정책 및 재난관리 정책 재수립 시 젠더 전문가, 재난피해 경험자, 지역사회 여성 대표 참여 의무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대표성 확대 기후재해 발생 시 성별 피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급 구호, 의료,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평등한 재난 대응 전략 수립
	② 기후에너지정책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 에너지전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발전 비중 30% 상향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 법제화 장거리 송전망 의존 중앙 집중형 에너지체계 전환 국가 및 지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기후와 에너지 관련 업무 통합 및 총괄 하는 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돌봄일자리지원법 제정으로 기후돌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③ 핵발전소 감축 및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및 SMR 개발 중단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국제협약 및 국제법 위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주요 국가/시민사회와 공동대응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에 다량 함유된 삼중수소, 스트론튬90을 식품 방사성 검사 핵종에 포함하고 검사설비 도입 해외직구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및 일본산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가공품 수입금지

성평등 부문

목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정책 요구	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있는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지위·권한 강화: 정책조정, 지원, 자문, 점검 및 평가기능 수행 등 정부 전 부서에 대한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 및 권한 강화
	② 젠더기반 여성폭력 대응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복원 및 확대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미성년 범죄피해자 범죄수사규칙(법정대리인 통보규정) 개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 국제적 사이버 범죄대응위한 부다페스트 협약가입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평화·통일 부문

정책 요구	③ 성주류화기반의 AI정책계획 수립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주류화기반의 AI정책계획 수립 확대: 고위험 영역 정의 및 사전 인증제 성주류화 원칙 반영 및 데이터 다양성 확보 알고리즘 편향성 제거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성주류화 원칙의 AI 시스템 반영: 개발·운영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 의무화 국제 협력 및 벤치마킹 강화: AI 윤리 및 안전성 평가기구 설치
	④ 뉴미디어 분야의 젠더폭력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미디어 분야의 젠더폭력 대응 강화 미디어 제작자, 심의기관의 성평등 심의 강화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목표	정치양극화 해소와 다양성의 평화문화 정착 및 평화체제 구축
정책 요구	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군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협상이나 남북대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견지하면서, 경성안보(북 핵·미사일 위협감소)와 연성안보(대북 안전보장 제공) 교환으로 북핵 위협의 감소와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를 해소해 줄 현실적인 비핵화 방안을 채택 북한이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추진을 지원하고, 한국도 중국·러시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대결이 아닌 평화·안정의 동북아시아 지역 환경을 조성 한·미 간에 사전협의를 제도화해 북·미 직접대화에서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비핵화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
	② 평화체제: 남북협력 복원 및 동북아 평화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발적 충돌 혹은 사고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는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비방 중지를 포함하여 접경지역에서의 필요한 모든 예방적 조치 실행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모멘텀 구축 남북 연락사무소 재건을 비롯한 남과 북의 대화채널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적 구상을 세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병행함으로써 한반도 내부 상황과 외부상황의 엇갈림이 없도록 정책 추진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남과 북이 합의하고 신뢰 및 협력 프로세스 진행 비핵 군축을 포함하여 군사동맹에 의지하는 평화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③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안보에서 국민 안보로 강조점 전환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강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존엄을 회복 평화 구축 공적기구들에 여성 참여율 50%로 확대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 분야 교육 전반의 참여 및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④ 평화문화 정착: 폭력적 시위, 남남갈등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에서 적대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징벌적 처벌을 제도화하여 적대와 혐오에 대한 법적, 사회적 경각심 고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정치적 양극화를 연계하여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사회적 갈등 해결과 대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시민사회의 평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학교교육에서 평화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켜 평화 문화 안착 추진

보건·의료 부문

목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정책 강화와 의료시스템 마련
정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과 보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 하나로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 · 불균형한 수가체계 개선 · 상병수당 제도 도입 · 국가 책임으로 의료 보장 ·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②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 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확립 · 농어촌부터 건강네비게이터 제도 도입 · 네트워크 기반 일차의료 통합 서비스 도입 ·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한 환자권리 강화

돌봄 부문

목표	돌봄 기본권 보장과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돌봄기본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기본권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에 돌봄권 명시 - '좋은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권리,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시한 기본법 제정 -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전환 ② 돌봄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정책 마련 :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 돌봄돌봄종합계획 마련에 따른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개혁을 위한 범정부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 지자체별 공공돌봄 기본공급률제 시행 - 내실 있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돌봄강화를 위한 돌봄책임제 ·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자 월급제 고용보장 및 적정 임금 확보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당사자 참여 보장 -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대상자 수 축소 - 장기요양중보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 · 일생활균형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산 여성에게 출산산전휴가 급여 지급 - 노동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 확대 - 일하는 모든 양육자(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등)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안 마련

시민사회 활성화 부문

목표	비영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제정
정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이행 · 비영리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지원을 총괄하는 행정기구 마련 · 결사의 자유침해하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조항을 폐기하고 준칙주의로 개정 · 영리조직에는 허용되나 비영리 공익법인인 제한됨, 비영리 법인의 분할 합병 허용 · 공익활동을 이종삼중으로 규제하는 법령상 의무 중복과 상충되는 제도의 통합적 정비

책 소개 <연대하는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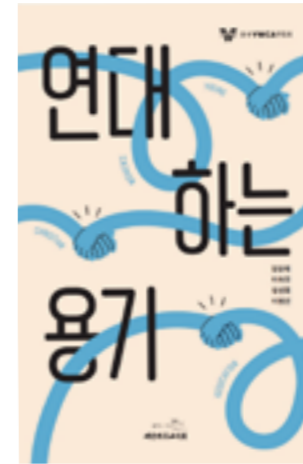
'나와 다른 이와 기꺼이 거할 때' 임하는 위로 YWCA 도서 <연대하는 용기>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2월 13일(목) YWCA 도서 <연대하는 용기>를 발간했다. 창립 103주년을 맞이한 (사)한국YWCA연합회는 YWCA 목적과 정신을 한국사회와 공유하고자, Y(청년 시민성), W(크리스천 페미니즘), C(에큐메니컬 신학), A(비영리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YWCA 운동과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모두가 꿈꾸는 정의와 평화의 세상

'연대'에서 희망을 찾다

YWCA 도서 <연대하는 용기>는 연합회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의 기획으로 유성희 위원장, 장운재, 이숙진, 이명신 위원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자들은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가 무너져내린 듯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지, 무엇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탐구의 여정을 시작한다.



미니즘이 단순히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다양한 차별에 저항하는 '다름의 연대'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제3부는 '청년 시민, 하나님 나라를 잇다'를 주제로 유성희 전 (사)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가 저자로 참여하였다. 저자는 기후 위기, 경제적

불평등, 디지털 윤리 문제 등 청년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 가운데 밝혀준 응원봉의 외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며, 거리에서 빛난 실천과 연대를 통한 청년 시민성을 보여준다.

제4부는 '목적 중심의 거버넌스 리더십'으로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이 집필하였다. 저자는 투명성과 책무성, 목적 중심의 거버넌스 리더십을 YWCA 사례를 들어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곳 거버넌스를 통해 어떻게 비영리 조직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안내해준다.

'에큐메니컬 신학', '크리스천 페미니즘', '청년 시민성', '비영리 거버넌스' 총 네 개의 주제 다뤄

도서는 총 4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는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장운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YWCA의 핵심 가치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에큐메니컬 신학을 '다른 이와 기꺼이 함께 거하려는 용기'로 요약하여 보여준다.

제2부는 '크리스천 페미니즘의 유산과 미래'로 이숙진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기독교 신앙과 여성주의가 함께 만들어낸 YWCA 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며 크리스천 페

<연대하는 용기>는 전국 대형서점 및 기독교서점에서 구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총 272페이지, 정가 15,000원.

인공지능은 인격체가 아니라 소비 제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이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경험을 해본 시민이 50.8%로 나타났다(2023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벌써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처음 보았을 때는 어쩐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인공지능을 경험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사 결과에 납득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무려 95.3%가 “주거 편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경험하였으며, 94.4%는 “교통”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경험해 보았다고 답했다. “주거 편의”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분야는 로봇청소기, 냉난방 등 ‘스마트’ 가전제품이다. “교통” 인공지능은 스마트 크루즈 등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운전 보조 시스템을 말한다. 즉,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소비자 제품으로 생활 깊숙이 진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완전한 인공지능 시대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한 ‘인간형’ 인공지능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현실 경험보다 미디어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대부분은 미디어에서 접한 간접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디어가 형성해 온 인공지능 이미지를 제품에 투사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볼 때이다.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매우 흡사한 외모에,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과 다르지 않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

보다도 더 인격체에 가깝다. 스피버그 감독의 2001년 영화 <에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년 로봇에 감정이입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 버려진 로봇의 그리움과 상실감은 인간과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의 50% 이상이 인공지능 제품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감상을 벗고 이 문제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인공지능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은 윤리적인가? 이러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인공지능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인공지능시대, 법과 제도로 소비자 안전과 인권침해 대비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제품과 소비자 인식 사이에는 다소 괴리가 있다. 이 괴리는 자연스럽게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 제품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하이프(과장 광고)’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제품이 언제나 인간보다 스마트하고 장차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아지는 미래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 말이다. 이러한 ‘미래적’ 인식은 이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준비해야 할 사회적 노력을 느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안전 규제가 미흡한 인공지능이 이미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위협한 제품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농산물 선별장에서는 로봇의 센서가 사람을 박스로 잘못 인식하여 사망사고를 냈다. 얼마전에는 배달로봇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일으킨 사고는 더 많다. 배달 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라이더에게 길을 잘못 안내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알고리즘이 차가 못다니는 길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기도 한다. 얼마전 소다라는 사진 앱은 여성 이용자의 사진을 누드로 바꾸어 불쾌한 충격을 주었고 ‘이루다’라는 챗봇은 학습 데이터에서 암기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여성과 흑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출력하기도 했다. 특히 이 챗봇에 사용된 인공지능 모델이 다른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납품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이런 대화를 접할 수도 있었다.

인공지능 규제 방향: 기록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따라서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과 인권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해 왔다.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안전이나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너무 큰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위험하지만 시장에 출시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전적인 위험 평가와 제품인증을 거쳐 위험을 완화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인공지능법의 핵심은 문서화와 기록 의무에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적응하는 인공지능 제품의 경우 과거 학습하였거나 알고리즘 요소가 변화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챗봇 이루다가 만14세 미만 아동 이용자의 카카오톡 채팅 대화내용을 학습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해당 회사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업자들에게 제품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기록을 구비하게 하면 이를 평가나 인증의 근거로 삼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규제 기관이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구제와 책임구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유럽연합 뿐 아니라 세계최초의 국제인공지능협약에서도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럽평의회가 마련한 이 인공지능협약에는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 서명에 참여하였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연말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는 이 법에는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하위법령에도 그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공지능 제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데도 우리 사회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의 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 기록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제품이 사고를 내면, 작동시킨 사람이 문제였는지, 하드웨어적인 장치가 문제였는지,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이 문제였는지, 최초로 학습한 데이터가 문제였는지, 출시후 학습한 데이터가 문제였는지, 최초의 모델 알고리즘이 문제였는지, 실제 환경에서 조정된 알고리즘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인공지능 제품의 공급망과 사용자 망은 특히 복잡하기 때문에 책임 관계 또한 그만큼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

사람의 심리는 인간형에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휴대전화 가상비서나 로봇청소기처럼 생활 가까이 접하는 디지털기에 대해서도 애착을 형성해 왔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인공지능과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먼저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지금의 인공지능 제품은, 아무리 인간에 가까운 외양을 띠더라도 인격체가 아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감정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의 피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만난 세계

왜 2030여성들은 광장으로 나왔을까



지난해 12월, 어느 연말과 같이 아쉬운 마음으로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3일 늦은 밤, 급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에게 최악의 연말을 선물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렸다. 모두에게 섬뜩하고 짙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다. 한해가 마무리된 것도, 또 새해가 온 것 같지도 않은 채, 그 멈춰버린 시간 가운데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추운 한겨울 연말연시를 광장에서 보냈다. 학교와 직장을 퇴근하고 광장으로 출근했다. 이번 청년토크는 광장을 물들었던 2030 여성청년들과 함께 했다.

아직 오지 않은 새해

시티 : 내란사태 이후 연말연초 어떻게 보냈어?

뱅뱅 : 송년회랑 크리스마스 파티는 당연히 다 취소 됐고, 2월이 다 가도록 아직도 새해가 오지 않은 것 같아.

시티 : 나도 그래. 요즘 매일 시위 현장에 나가느라 연말 마무리도 제대로 못했고, 아직 2025년이 안 온 기분이야.

뽕뽕 : 나는 12월 3일에 영화보고 나오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 밖에 있는데 너무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웠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뱅뱅 : 과거 계엄령을 '겪었던' 부모님 세대에는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우리처럼 계엄을 역사로 '배웠던' 사람들은 그날의 기억이 너무 무서웠을 거야.

시티 : 만약 4일 새벽에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했더라면, 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어.

뽕뽕 :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근데 이제 또 다른 긴 싸움의 시작이니 지치지 말아야지.

친구들과 갈 수 있는 시위 현장

뱅뱅 : 솔직히 나는 비상계엄 선포를 뉴스로 접하고 나서

집회를 나가야지라는 마음 한켠에 현장에 나가기 무섭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시티 : 나도 그랬어. 2016년 촛불시위 때는 학생이라 시위 현장에 직접 가지는 못했거든. 우리가 떠올리는 시위는 민주화 시위, 반정부 시위, 폭력적이니깐 당연히 무서웠을 만 해.

뽕뽕 : 나도 이전까지는 시위현장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집회는 너무 재밌고 안전해 보이더라.

뱅뱅 : 나는 지금 매주 집회 현장에 나가잖아. 시위 현장을 우리 또래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연대감을 느끼고, 5060세대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위 문화가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

시티 : 우리 지역도 매주 집회를 하기는 하는데 역시 서울에서 하는 대규모 집회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더라. 나도 시간될 때마다 친구들과이랑 같이 놀러가는 기분으로 집회가는 중이야.

K-팝 응원봉

시티 : 나는 아이돌 응원봉을 이렇게까지 알차게 잘 쓸 줄 꿈에도 몰랐잖아. '뽕뽕'¹ 들고 매일 콘서트 가는 것 같아.

+++

1 K-팝 아이돌 NCT를 응원하는 응원봉의 애칭이다.

뱅뱅 : 나도 10년만에 창고에서 빅뱅 응원봉 꺼내서 다녀왔잖아. 시위 현장에서 빅뱅 노래 나오니깐 더 재밌더라.

뽕뽕 : 요즘은 시위 나갈 때 응원봉 빌려준다고 당근에 올라오기도 한대.

뱅뱅 : 어쩌면 시위를 이끄는 건 K-팝 팬덤의 전투력이 아닐까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에서 어느 순간 계엄과 탄핵의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시티 : 한두 팬덤이 아닌 거의 모든 아이돌 팬덤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시위현장에 나오는걸 보면 요즘 2030들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뱅뱅 : 행동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야. 달라진 시위 문화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해.

시티 : 어딘가 소속되어서 나온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뜻을 내고 있는 거니까, 되게 마음이 따뜻해져.

뽕뽕 : 세월호 사건, 2016년 촛불집회 시기에 학생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때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이번 기회에 더 뽕뽕 뭉치게 된 것 같아.

왜 2030여성들은 광장으로 나왔을까

뱅뱅 :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체 집회 참가자 가운데 2030 여성이 약 30%래.

시티 : 윤석열 정권이 반여성주의 공약을 많이 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집회에 여성들이 많은 걸수도 있어.

뽕뽕 : 뉴스를 통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2023 여성은 늘 그곳에 있었어. **시티** : 맞아. 우리만 해도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YWCA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잖아.

뱅뱅 : 집회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을 기특해하는 어른들의 시선도 불편해.

뽕뽕 :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여성들은 전부터 광장에 늘 있었지만 기성세대와 기성 언론, 기성 정치가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어.

뱅뱅 : 그래. 성경 속에도 가려진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처럼 계속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젊은 여성들을 이제야 사회가 봐준 게 아닌가 싶어.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정신

시티 : 사실, 꽤 오랫동안 YWCA와 관계가 없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연대의식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서 대화가 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

뽕뽕 :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때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게 필요한데 요즘 청년들은 성공에만 눈이 멀어 있어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뱅뱅 : 절망사회를 건너는 11개의 시대정신(이원재, 황세원, 2017)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 여기에 '누구와 함께'를 더한 것을 시대정신이라고 한 대.

시티 : 그런 점에서 YWCA는 창립과 동시에 오랫동안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시대정신을 가지고 여성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

뱅뱅 : 각 시대의 상황과 배경은 다르지만, 고통받고 억압받던 여성들과 함께한 것이야말로 YWCA 선배들이 지녀온, 지켜온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어.

뽕뽕 : 지금의 우리도 광장에 있는 여성들과 또 다른 여성들과 함께 YWCA 시대정신을 가지고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사회를 우리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 🌱

2025 YWCA 신년예배·YWCA 봉사상, 근속상 시상식



2025 YWCA 신년 예배가 1월 10일(수) 오후 2시에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유튜브(YWCA KOREA)를 통해 중계되었다. 예배는 '생명을 향한 여성연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미현 목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고은 님(경희대학교 성학과 재학)의 특별 찬양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YWCA 운동의 비전과 희망을 나누었다. 이어서 신년 하례식과 YWCA 봉사상, 근속상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이종임 복지사업단 이사장이 30년 봉사상을, 홍수진(부장, 김미애(팀장) 실무활동가는 10년 근속상을 수상하였다.

(사)한국YWCA연합회 박은실 사무총장 취임식



2025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사)한국YWCA연합회 박은실 사무총장 취임식이 1월 7일(화) 진행되었다. 박은실 사무총장은 1993년부터 교육, 정책 기획 등 다양한 역할을 두루 거쳐, 중점운동국-정책기획국-기획조정국 국장을 역임하였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박은실 사무총장의 취임식에는 송경용 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회), 육순중 이사장(CBS 재단), 원영희 직전회장, 이예림 법인이사(사)한국YWCA연합회), 홍진영 사무총장(사)세종YWCA)이 영상으로 축하와 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은실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YWCA는 자원하는 마음, 연대하는 용기, 환대하는 기쁨, 파종하는 인내라는 네 가지 보물을 간직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YWCA가 가진 보물들의 소중한 결실을 시민들과 나누며 아낌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YWCA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생명비전연구위원회 최종보고회

YWCA생명비전연구는 2024년 진행된 생명비전연구 프로젝트들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보고회를 2025년 1월 11일(토) 한국YWCA연합회에서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를 직접 진행한 연구위원 및 연구원과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진 연합회 실무활동가들 비롯해 연합회 회장과 법인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연구팀의 발표를 듣고, 질문과 소감을 나누었다. 생명비전연구는 YWCA 운동의 방향을 고민하고 연구를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시민들은 2024년 세 가지 연구 주제 'YWCA 지역운동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청소년 주도의 탈핵기후생명운동', '여성 청년의 SNS 사용과 안절감 및 취업 준비 활동'을 선정했고, 이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연구 기획부터 실행, 보고서 작성까지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30쪽)

2025 Y-틴 전국협의회



2025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14(화)일부터 1박2일간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총15개 회원YWCA의 대표 청소년, 실무활동가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24년 각 지역의 활동은 영상상을 통해 보고되고, Y-틴은 25년 중점운동 선정을 위해 사전 설문으로 제시된 '일본군 성노예제' 주제에 맞춰 세부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2025년 Y-틴 중점운동은 '일본군 성노예제'로 결정되었다. Y-틴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임사랑 대전Y 회원이, 부회장으로 강경화 대구Y 회원이 선출되었으며, 동부, 북부, 서부지역의 회장단 역시 당일 진행된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출되었다. 중부 지역 회장단은 추후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2025년 2월 15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대전, 부산, 서울, 순천, 안산, 울산, 창원 등 7개 지역 YWCA의 청소년과 활동가들이 모여 '키다리학교 2024'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역에서는 예술, 환경, 기후위기 대응, 지역 연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책임감과 실행력을 길렀다. 행사에서는 활동 전시와 피드백 시간이 마련되어 참여자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청소년들은 2024년을 돌아보며 '유대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에는 '숏폼 환경 캠페인', '생물다양성 탐사', '적극적인 연대' 등의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키다리학교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가치와 실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39쪽)

2025 YWCA 신입회장교육 개최



2025 YWCA 신입회장교육이 2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1박 2일간 진행됐다. YWCA 신입회장교육은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회장의 역할과 사명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교육으로, Y아카데미에서 새롭게 발간한 교재 <연대하는 용기>를 주 교재로 사용하였다. 총 16명의 회원YWCA 신입회장(고양, 광주, 김해, 논산, 부산, 수원, 안산, 안동, 원주, 인천, 전주, 창원, 청주, 춘천, 통영, 파주Y)이 참석하여, YWCA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자세한 내용은 27쪽)

2025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2025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새문안교회에서 2025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전국 50개 회원YWCA 대표를

비롯하여 연합회 직무상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의, 평화, 생명, YWCA Again!"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YWCA 운동 가치 확산을 위해 함께 다짐하며, ▲법인이사 보선 ▲법인감사 선임 ▲회원YWCA 관련 규정 개정 ▲YWCA 지역운동강화 지원계획(2025-2027) 승인 ▲2025년 (사)한국YWCA연합회 사업계획(안)과 예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함께 진행된 '제4회 이행자리더십어워즈'의 수상자로는 (사)대구YWCA 김연희 회장과 (사)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전 상임이사가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4쪽)

3월 월례아침기도회



3월 월례아침기도회가 3월 4일(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이진아 목사(일산나들목교회)가 여호수아 14장 7-14절 말씀을 통해 '충성스럽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를 맞이하여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책임과 행동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세계 여성의 날 성명서



한국YWCA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서 <성평등 정책 실현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국YWCA는 한국의 성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고 여성 대상 폭력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책임을 외면해온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젠더폭력 근절과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교육-노동-복지기후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삼아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세계 여성의 날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용기 있는 외침을 기억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날임을 전하며, 한국YWCA는 멈추지 않고 연대와 행동으로 성평등 사회 실현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YWCA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해시태그 운동을 전개하며,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이어갔다.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69) 한국YWCA 대표단 파견



3월 10일부터 열린 UN 여성지위위원회(CSW)에 한국YWCA 대표단이 참여했다. 69차 CSW 대표단은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은영 제2부회장, 서다미 청년부회장, 추은지 성평등운동 간사, 이예림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 박지인 기획국장, 김윤희 소통국장이다. 대표단은 정부 간 대화로 진행된 본회의와 부대행사(Side Event), 그리고 NGO들이 주관하는 병렬행사(Parallel Event)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현지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기술매개 젠더폭력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국제적 관심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같은 주제로 병렬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후 대표단은 전 세계 YWCA들과의 네트워킹 행사와 다양한 NGO 병렬행사에 참여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대행이 발표한 정부 간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19쪽)

회원YWCA 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 1그룹(1년차) 개최



3월 12일(수)부터 13일(목)까지 1박2일간 진행되는 <회원YWCA 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 1그룹(1년차)>이 총 15명의 회원Y 신입사무총

장(고양, 군산, 남원, 대구, 서울, 성남, 세종, 안산, 양산, 여수, 울산, 원주, 진해, 춘천, 포항)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2일(수) 개최되었다.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사무총장 사명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장운재 이화여대 교수,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 위원), 'YWCA 사무총장의 역할과 사명'(박은실 연합회 사무총장), 'YWCA 100년의 여정 그리고 연대하는 용기'(유성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 위원장),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이숙진 이화여대 강사,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 위원)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또한 '사무총장 네트워킹과 나눔'(박은실 연합회 사무총장)을 통해 각자가 가진 강점을 알고 서로를 격려하였고, '사무총장 네트워킹과 나눔2'(송록희 연합회 국장)에서 <한국YWCA 95개 논제>를 바탕으로 사무총장으로서 다짐을 나누었다.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



3월 14일(금) 키다리학교 운영진 OT가 진행됐다. 이번 OT에는 2025년 키다리학교를 운영할 광양, 대전, 서울, 순천, 안양과천군포의 왕, 울산, 창원 7개 회원YWCA의 실무활동가들이 참석했다. OT에서는 키다리학교 사업 개요와 운영진의 역할이 안내되었고, 청소년의 주도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 교육이 진행됐다. 기존 운영 경험이 있는 서울YWCA와 울산YWCA는 선배로서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운영 노하우를 나누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 탈핵-민주주의 행진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 행진'(이하 '315탈핵집회')이 3월 15일(토) 오후 2시, 경복궁 서쪽 서십자각터 앞 거리에서 진행됐

다.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맞아 탈핵기후환경-종교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비판하고 에너지민주주의와 기후정의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YWCA를 비롯해 약 500여 명이 함께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YWCA와 연합회 활동가 등 80여 명은 파란 YWCA 조끼를 입고, 노란 손장갑에 '탈핵, 생명, 정의, 평화, 탄핵' 등의 피켓을 붙이며 탈핵의 염원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24쪽)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소비자 공동행동 심포지엄



한국YWCA가 연대하여 함께 하고 있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만드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2025년 3월 18일(화)과 20일(목) 양일간 서울대학교 융합관 양윤선홀(혜화동 소재)과 유튜브 생중계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의료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체크' 주제에서는 '1세션: 초과사망과 응급의료서비스', '2세션: 중증의료서비스와 중등도/경중 의료서비스로 의료대란 상황에서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책과 정책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 '더 나은 의료체계를 위해'에서는 '3세션: 의료서비스 공급과 지불보상 개선', '4세션: 미래 의료인 수련 환경 로드맵: 미래 역량취득에 바람직한 수련-노동방식에 대한 시론', '5세션: 의료서비스 소비자 및 공급자 모두를 위한 소송환경 개선'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세션의 좌장으로 안정희 소비자운동팀 부장은 토론을 맡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2025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지난 3월 20일(목), 2025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사)서울YWCA에서 진행하였다. 연합회와 46개 회원YWCA 사무총장과 연합회 조은영 회장과 이은영 제2부회장 외 실무활동가 총73명이 참석하였다. 여는 예배에서 정미현 목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의 '분간하여 굳게 잡을 것'이라는 설교를 듣고, 주제강연으로 신진옥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한국사회 진단과 시민사회의 역할' 강의를 통해 탄핵 국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42쪽)

2025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 워크숍



2025년 3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4년도 법인이사 평가를 바탕으로 2025년도 법인이사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YWCA 운동과 운영 영역에서의 주요 논의 과제를 중심으로,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했다.

YWCA 탈핵운동사 오픈토크



YWCA 100년사 편찬을 위한 두 번째 세미나인 'YWCA 탈핵운동사 오픈토크'가 3월 25일(화)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와 온라인(Zoom)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YWCA 탈핵운동 역사'에 대한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발제에 이어 지역과 청년의 시각에서 탈핵운동의 방향을 모색

하는 패널 토크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현주 (사)청주YWCA 국장과 진행인 YWCA생명비전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역과 청년의 탈핵운동 경험과 과제를 나눴다.

3.15 제15차 범시민대행진, 대국민 집중집회

3월 15일(토) 오후 4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 연합회를 비롯하여 9개 회원YWCA(고양, 광양, 남양주, 목포, 부천, 수원, 안양과천군포의왕, 의정부, 안산)가 참여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12.3 사태 이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며 한국YWCA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국기도

문, 현수막 게첨, 인증샷 캠페인 등의 긴급 행동을 벌여왔다. 또한, 1,7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하여, 현재 탄핵 인용, 내란 세력 심판 등을 촉구하며 여의도, 한남동,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에서 범시민대행진에 지속적으로 참석해왔다. 3.1절, 3.8 여성의날, 3.15는 대국민 집중집회로 회원YWCA들과 함께 하였으며, 3.22 윤석열 파면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에도 참여하였다. 한편, 한국YWCA는 총 6차에 걸친 시국기도문을 발표하여 전국 회원YWCA와 더불어 헌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와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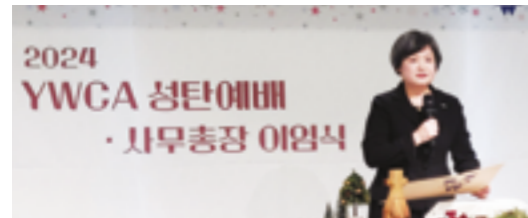
2024년 12월 소식

2024 YWCA 성탄예배



2024년 YWCA 성탄예배가 12월 12일(목) 오후 2시에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유튜브(YWCA KOREA)로 생중계 되었다.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성공회(수원교회) 김홍일 신부가 말씀을 전하고, 김미현 찬양사역자의 특별 찬양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성탄 헌금은 라오스 지역에서 여전히 과거 내전 시 던져진 불발탄이 폭발하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과 아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사)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이임식



(사)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이임식이 12월 12일(목) 성탄예배 직후 연합회 A스페이스와 유튜브(YWCA KOREA)로 중계되었다. 구정혜 사무총장은 1997년 한국YWCA연합회 간사로 입사하여 25년간 실무활동가로 활동했으며, 202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실무 총책임을 맡았다. 이후 연합회, 후원회, 복지사업단 3개 YWCA 법인의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조직을 이끌었다.

특히 상임이사 재임 기간 동안 전국 50개 회원YWCA의 법인화를 완료하며 조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고, 조직관리와 행정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구정혜 상임이사는 이임식에서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회 이행자리더십어워즈를 수상하기도 했다.

제28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제28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이하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이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MBC 이휘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올해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JTBC '모든패밀리'에게 수여됐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딤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에게, 정의 평화' 부문 우수상에는 유튜브 BBC 뉴스코리아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에게 돌아갔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청년미디어 특별상을 신설해 유튜브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에 수여했다.

제5차 탈핵기후생명운동 담당 활동가 워크숍 '성평등 관점 기후정책 연구보고'

한국YWCA의 중점운동인 탈핵기후생명운동의 활동가 역량강화



를 위한 5차 워크숍이 2024년 12월 19일(목) 18개 회원YWCA(고양, 광양,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창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줌

(ZOOM)에서 진행되었다. 12월의 주제는 '성평등 관점 기후정책 연구보고'로 여성학 연구자 김신효정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기후위기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특히 OECD 당사국을 중심으로 젠더액션플랜 이행을 검토 분석하여 한국의 젠더액션플랜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간사가 2024 탈핵기후생명운동 보고 및 2025 탈핵기후생명운동 사업계획 안내, 성평등X기후정책 연구보고서 관련 보고를, 남궁혜경 부장이 2025년 회원Y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방안 안 전급식조례제정 현황과 모니터링 활동 방향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5차 동안 진행된 워크숍은 현재의 이슈를 다루고, 탈핵기후생명운동 사례 공유를 하므로 담당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였다.

동정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직전회장, 소비자의날 국민포장 수상 12월 3일

<커피사회> 출간



이명신 지음 | 마음 연결 224쪽 | 16,000원

이명신 아카데미연구위원이 한국 사회에서 커피가 갖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 신간 <커피사회>를 펴냈다. 한국의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405잔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국의 카페 수는 약 10만개에 달한다. <커피사회>의 저자, 경영학자 이명신 박사는 커피에 중독된 한국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이 책은 풍요로운 삶을 지속하고 싶은 '커피 인간(Homo Coffee)'을 위한 가이드이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5.11. ~ 2025.2.28.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주영 김주현 남궁혜경 남희숙 돌람수렌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은실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울 백해진 송록희 송인호 신인숙 심은옥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예림 이은영 이정숙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현진 이혜련 이희숙 임진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1,985,000원
단체	대전YWCA, 목포YWCA 2곳	744,520 원
합계		2,729,520원

청(소)년 활동지원금 (농협 301-1922-0000-31)

2025. 1.1 ~ 2025.2.28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병찬 김형남 남궁혜경 박동순 신성군 조한울	170,000원
합계		170,000원

Y-틴 전국협의회 모금 (농협 301-0226-0851-01)

2024.09.06. ~ 2025.2.28.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남궁혜경 박민경 박윤애 이예린 이은혜 이주영 장여옥 조은영 조은정 최봄 최수산나 홍수진	
단체	삼거리치킨0922	
합계		1,130,000원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임현숙 사무총장

청소년 써포터즈-자립준비청년 후원



강릉YWCA는 2024년 한 해 동안 자립 준비 청년 세 명을 선정하여 위원회별로 1명씩 책임지고 매일 밑반찬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11월에는 회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배추김치와 총각김치를 담아 전달하였고, 12월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회원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와 후원금과 포근한 겨울 이불을 전달하여 성탄절의 의미를 더하였다. 2025년 새해에는 떡국 떡과 만두, 돈가스, 햄류, 과일 등을 전달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응원했다.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3월 7일(금) 세계여성기도의날을 맞이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해교회에서 여성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들이 한국YWCA와 함께 자본주의 체제와 경쟁시대에서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하여 혐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과 선거권 획득을 위해 벌인 시위에서 출발한 국제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여성날'이 지정되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를 외친을 기념하여 여성들에게 장미꽃(참정권)과 빵(생존권)을 선물했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사무총장 이취임예배



2월 11일(화) 사무총장 이취임예배가 서울Y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수고한 김양선 사무총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서울Y를 이끌어갈 최 봄 사무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설교를 맡은 장윤재 서울Y 고문목사는 출애굽기 18장 21, 22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능력'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했다. (왼쪽: 역대 사무총장의 이름과 재임기간이 새겨진 은목걸이를 한 최 봄 신임 사무총장. 오른쪽: 3년간의 임기를 마친 김양선 전임 사무총장)

(사)속초YWCA

김다미 팀장

3.8 세계 여성의 날



3월 7일(금) 오전 11시, 속초중앙시장 입구 삼거리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사)속초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는 여성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두 기관이 함께 진행해 그 의미가 더 컸으며, 2025년 세계 여성의 날 주제인 '더 빠르게 행동하라'에 맞춰 세계 여성의 날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속초YWCA 박연희 회장의 '3.8 세계 여성의 날 성명서' 선언으로 시작하여 생존권을 의미하는 빵(견과류바)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장미를 중앙시장 내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속초YWCA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별, 나이, 국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며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인천YWCA

문지혜 팀장

인천YWCA 23-24대 회장 이취임식



1월 21일(화) 인천YWCA회관에서 제23대-24대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 표신희 부회장이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권미영 직전 회장의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으로 활동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취임한 표신희 회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인천YWCA"라는 정책을 이어받아, 지역 단체, 기관, 교회와 협력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정니은 간사

3.8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진행



제 117차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고양시 주엽광장 꿈드림 무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회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여성의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성의 날 기념사 및 여성 권리 신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세계 여성의 날, 한국 여성의 날의 역사를 알아본 뒤 세계 여성의 날의 상징인 빵(생존권), 장미(참정권)의 의미를 알아맞히는 퀴즈와 남녀 임금 격차

에 대한 의견 투표를 진행했다. 많은 시민들이 여성의 날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한 여성 권리 신장에 대해 공감하였다. 시민들은 남녀 성별 임금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 과정 진행



남양주YWCA는 2월 6일 독거노인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취약계층들에게 의료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였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26명이 참여하여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수료생들은 남양주YWCA에서 남양주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누구나 돌봄, 일상돌봄 사업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사)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서로돌봄' 사업 시작



2025년 1월 9일(목), 부천YWCA는 '서로돌봄'을 시작했다. '서로돌봄'은 부천YWCA 원미노인참여나눔터의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부천YWCA가사관리사들, 모두 여성의 이름으로 서로 돌보자는 의미로 탄생한 사업이다.

부천YWCA 원미노인참여나눔터 어르신들의 50% 이상의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고 계신다. 홀로 지내는 세월만큼 쇠약해지고 집안을 살필 여력은 점점 없어지기에 부천YWCA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방문

하여 어르신들을 돌본다. 앞서 부천YWCA는 2024년 크리스마스 나눔밥상을 통해 240만원을 모금하여 1월부터 두 분의 어르신 가정에 6개월 동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성남YWCA

장명자 사무총장

사무총장 이·취임식



성남YWCA는 3월11일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장옥현 사무총장은 14년전 성남YWCA 활동을 시작해 간사와 부장을 거쳐 사무총장까지 청지기로서 성남YWCA를 위해 헌신했다. 뒤를 이어 11대 장명자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장명자 사무총장은 20대에 성남YWCA 실무활동가로 일했었고 위원과 이사와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성남YWCA를 알리고 함께 소통의 역할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수원YWCA

이민정 팀장

시민환경특강 - 생활 속 탄소중립!



수원YWCA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시민환경특강을 진행한다. 시민환경특강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방법을 알리기 위해 월회 진행하고 있으며, 2월 21일(금)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천연 폼클렌징 만들기 특강을 진행

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사용해봄으로써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 볼 수 있었다. 3월말에는 천연 핸드워시 만들기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원YWCA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안산YWCA

홍지인 국장

안산YWCA 종횡무진 봉사단



2월 28일(금) (사)안산YWCA의 회원동아리인 '종횡무진 봉사단'의 정기 봉사가 진행됐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선부동성당 부설기관인 사랑나눔터(노인무료급식소)에서 관내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식재료 손질에서부터 배식활동, 반찬도식탁 포장 등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횡무진 봉사단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김영미 간사

2025년 양성평등 특강1차



2월 11일(화) 안양YWCA 회관에서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특강1차 "양육자 성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문화 실태를 전하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평등한 성문화 확립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이해

에 대한 전문 강의로 진행됐다. 가정 내 성평등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성인지각수성이 필요하고, 자녀에 따라 필요한 성지식 및 성평등한 가치관으로 소통하는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파주YWCA

김래원 팀장

손끝에서 피어나는 나눔과 치유 '누구나 공방'



1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사)파주YWCA '누구나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창작의 기쁨 속에서, 참여자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 공방에서는 서툰 바느질이라도 컵받침, 가방, 모자, 앞치마, 파우치 등 만들어 손끝의 움직임이 마음을 어루만지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여성들의 치유와 성장이 이루어진다. '누구나 공방',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평택YWCA

손혜민 간사

2025년도 정기총회



1월16일(목) 오후 6시30분 평택YWCA 3층 교육실에서 이사, 위원, 정회원, 준회원, 실무활동가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개회예배에는 '참된 신앙으로 사는 길' 제목으로 이종원목 사님의 말씀과 평택YWCA Y-틴의 '감사하리' 찬양으로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다. 24년 결산 및 사업보고와 25년예산(안)과 사업계획심의와 5명의 신임이사가 선출되었다.

(사)하남YWCA

김상미 간사

자원순환·업사이클링 교육 및 봉사단 운영



경기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월 11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자원순환교육과 업사이클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업사이클링 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한 재봉틀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봉사자들이 폐우산과 현수막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게 된다. 완성 제품은 판매하여, 지역 내 복지시설에 기부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 보호 실천과 지역 사회 나눔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기대된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김난영 간사

2025년 신입실무자 교육



2월 28일(금) 신입실무자 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입실무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영상으로 보는 YWCA,

YWCA 목적과 정체성 이해, YWCA 역사, 논산YWCA와 중점운동, 한국YWCA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를 통한 영성훈련, 다짐 및 소감 나눔 순으로 진행되었다. 논산YWCA 신입실무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YWCA 목적 및 정체성을 되새기고 Y의 조직과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의 길로 가기를' 다짐하였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검은목요일 캠페인 진행



3월 5일(수) 오전 8시30분 대전YWCA 4층 대강당에서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대전YWCA 회원 및 직원 60여 명이 검은목요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검은목요일 캠페인은 폭력피해 여성들을 기억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대전YWCA 회원, 활동가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여성 폭력근절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참가자들은 "폭력에 맞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불의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여성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3·8세계여성의날 행사 부스 운영



세종YWCA는 3월 8일(토) 13시 새롬종합복지센터 1층에서 제117주년 3·8 세계여성의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종지역 21개 여성단

체 및 기관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세종YWCA에서는 77년의 역사, 세종YWCA여성들의 '내 안의 색을 찾아서(퍼스널컬러 진단) 부스를 운영하였다. 퍼스널 컬러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을 강조하는 도구로서 사회적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제천YWCA

김미경 국장

탄소중립, 작은 실천 큰 변화



제천YWCA는 지역의 장애인시설인 살레시오의 집에 거주하는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지구환경 교육과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기후재난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생활시설인 만큼 전기사용량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슬기로운 분리배출, 샤워하는 시간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 수질오염 예방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았다. 이론 강의 후에 EM을 활용한 친환경삼푸 만들기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였다.

(사)청주YWCA

한기연 팀장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이사위원 연수



3월 11일(화) 유기농마케팅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자원활동'이라는 주제로 청주YWCA 이사위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의 강의를 맡은 박윤애 연합회 법인이라는 자원봉사자 단 순히 개인의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이사는 자원봉사자의 욕

구와 기관의 욕구, 나아가 지역사회의 욕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청주YWCA의 '여세운동'이 그 모범적인 사례임을 높이 평가했다. 청주YWCA 오은숙 회장은 "박 이사의 강의를 통해 큰 감동과 영감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각자의 역량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곳곳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다짐하였다." 고 말했다.

(사)충주YWCA

이인선 간사

평화와 화합을 위해 모든 충주여성교인들의 '기도의 손'



충주YWCA는 3월 7일(금) 충주동부감리교회에서 충주지역 기독교 여성 100여 명과 함께 충주시기독교연합회의 협조로 '2025년 세계기도일예배'를 열었다.

2025년도 예배문은 남태평양 국제도 여성들이 작성하였으며 국제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세계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연대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조기형 동부감리교회 담임목사는 "나를 지으심에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파했으며, 충주YWCA합창단과 찬무단의 특송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난 후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감사의 나눔 시간을 함께 하였다.

경상권역

(사)김해YWCA

이지현 사무총장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김해YWCA는 1월 20일(월) 오후 2시에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순서로 김해시기독교연합회회장인신 드림교회 윤은수 목사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신다" 는 말씀을 전했다, 2부 본 회의에서는 2024년 결산과 2025년 사업 계획과 예산을 통과했다, 김혜진 회장에 이어 김진환 신임회장이 선출되었고 법인이사들도 선출하였다. 12분의 이사들이 틈틈이 연습한 손가락난타 특별찬양으로 하나



남께 영광돌렸고, 2025년부터 3년을 사단법인 김해YWCA의 이사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이사사명서를 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특히 5명의 중,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다음세대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사)대구YWCA

장필선 간사

재가노인복지센터 개소 예배



3월 13일(목) 대구YWCA 6층 강당에서 대구YWCA재가노인복지센터 개소 예배를 드렸다. 이날 개소 예배에는 이사, 위원, 실무자, 요양보호사 등 33여 명이 참석해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대구YWCA는 2007년부터 18년간 운영해온 대구YWCA재가노인돌봄센터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재가,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사업을 분리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개소했다. 개소 예배에서 대봉제일교회 윤성권 목사는 '인생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단순한 육체적인 돌봄을 넘어 어르신들의 노년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영적인 쉼터가 되기를 축복했다.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 탈핵 캠페인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참사가 발생한 14주기를 맞아 3월 11일(화), 마산YWCA도 탈핵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꿈꾸며,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대참사를 막고 안전한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고 외쳤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사)부산YWCA 회장 이취임 예배

3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부산YWCA 일한실에서 이사,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제38, 39대 김문진 회장의 퇴임과 제40대 김혜진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부산YWCA 본부직원의 특송으로 전임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어 전임회장과 신임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소임 말은이의 결단과 함께 참석자 모두는 촛불 전달식으로 부산YWCA의 역사와 활동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사)사천YWCA

강류안 사무총장

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 탈핵캠페인

사천YWCA는 3월 11일(화) 동남농협 앞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 및 탈핵 캠페인 진행하였다.

이번 탈핵 캠페인은 우리나라 핵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생명을 위협하는 핵에너지에 대한 반대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며 생명운동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14년 전 시커먼 비뚤물이 후쿠시마를



뒤덮던 그날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탈핵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홍보물을 나누었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3.8 세계여성의날 캠페인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3월 7일(금) 양산YWCA를 포함한 경남YWCA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경남시민들에게 세계여성의날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생존권'을 뜻하는 빵과 '참정권'을 뜻하는 장미꽃을 나눠 드렸다. 양성평등 퀴즈, 나도 한마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2025년 (사)울산YWCA 신년하례회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 실천, 다짐을 발언하고 공유해 개인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사)창원YWCA

하민화 간사

창원YWCA 본부/부속기관 정체성 교육



3월 4일(화) 창원YWCA는 본부와 부속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 일하기센터, 어린이집) 전직원 정체성 교육을 실시했다. 창원YWCA 신옥희 회장의 특강으로 한국YWCA의 설립과 대표마크에 내재된 YWCA 정신과 역사와 시대마다 주창해 온 운동의 역사를 되돌아 보았다. 정체성 교육을 통해 NPO·NGO로서의 YWCA 가치를 바르게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교육 후 타 기관 실무자 5명 이상을 만나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지며 서막했던 분위기가 친숙해지고 같은 YWCA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통영YWCA

윤정형 간사

Y-행복학교 제2회 성인문해 초등학력인정 졸업식

2월 11일(화) 제2회 성인문해 초등학력인정 졸업식이 통영YWCA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강순종(72세), 권말연(67세), 김봉순(67세), 박두선(62세), 이상희(54세), 최복덕(74세), 최성자(77세) 총 7명의 학습자에게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졸업생의 가족과 교사, 내빈들이 참석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생활을 마무리한 학습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격려하는 감동의 졸업식이 되었다.

2월 25일(화) 12시, 롯데호텔 울산에서 신년하례회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YWCA를 후원하고 동역해주신 후원자님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생명운동에 기반한 여성, 청년리더십, 공동체 활동이 담긴 YWCA와 수탁기관의 활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창준 목사(한빛교회)의 기도, 동역자 소개, 김태경 회장의 인사말씀, 덕담나누기, 이상대 목사(에덴교회)의 식사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태경 회장은 "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울산YWCA를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님을 뵈게 되어 기쁘다. 50년을 바라보는 울산YWCA가 앞으로도 시민단체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여성의 힘으로 진주를 바꾸자!"



3월 6일(목) 오전 10시, 진주시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진주여성연대와 함께 117주년 세계 여성의날 기념 3.8 진주 여성대회를 개최했다. 2025년 진주여성대회는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여성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김은주 팀장의 사회로 진행 된 행사는 1부 진주여성포럼과 2부 진주여성대회로 구성됐다. 1부 진주여성포럼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수현 사회학과 교수가 "내란의 젠더정치: 정치참여의 성별세대 교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다. 2부 진주여성대회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신주현과 통일호 김선장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작성한 3.8 여성의날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청소년 기후위기 비상행동

2월 28일(금) 12시부터 유희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채식 체험과 EM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관련 사건들을 보며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후 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채식 체험 및 EM비누도 만들어보면서 앞으로 일상



통영YWCA는 1990년 창립과 함께 성인문해교실을 개설하였고 2021년 학력인정문해교실로 정식인정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사)포항YWCA

이예린 부장

3.8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



포항YWCA는 3.8 세계 여성의날 기념 행사로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빵을 YWCA 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나누며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성명서 및 SNS 해시태그 캠페인에 동참하여 회원과 시민들에게 YWCA 운동을 알렸다. 포항YWCA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체감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소통을 위해 양성평등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라·제주권역

(사)광양YWCA

이효진 팀장

저소득 배려계층 LED조명 교체로 에너지 전환 실현

광양YWCA는 2월22일(토) 광양시 태인1구, 태인2구 마을을 방문해 LED조명 교체 및 전기설비 안전 점검 활동을 펼쳤다. 지역기업 봉사단(희망등전기재능봉사단, 반딧불전기재능봉사단)에 15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저소득 배려계층 7세대를 대상으로 낡은 전선, 콘센트,



스위치 교체 등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존의 노후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다.

LED조명은 각종 벌레가 좋아하는 자외선을 발산하지 않아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고 기존 형광등이나 백열등에 비해 수명이 길며 전기소모가 적어 최대 60%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사)광주YWCA

조승리 과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5.18 광장으로 모이다



광주YWCA는 2월 15일(토), 광주 금남로 및 5.18 민주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 14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인 금남로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여는 것에 대항하여 진행되었다. 민주 집회는 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했으며, 자유발언, 공연, 현장 인터뷰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극우세력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추운 날씨였지만 광주시민 2만여 명이 함께 모여 이땅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염원하였다.

(사)남원YWCA

강현서 간사

3.8 세계여성의 날 거리 행진

3월 7일(금) '3.8 세계여성의날' 의미를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여성안전연대기관, 남원YWCA 부속시설, 남원시공동



체지원센터 등 각 기관과 함께 3.8 세계여성의 날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가자, 성평등 민주주의로!', '연대하라, 성평등으로' 등의 슬로건을 들고 지역 내 시민들에게 장미꽃(참정권)을 나눠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문화의 장을 만들었다. (사)남원YWCA는 앞으로도 여성 권익 신장의 기폭제가 된 날을 기념하고 차별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희망지원센터 위탁급식 지원



목포YWCA 부속 사회적기업 희망지원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목포·무안지역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돌봄교실 16곳 등 총 557인분의 위탁급식을 지원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반찬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으로 구성된다. 당일 입고되는 신선한 식재료로 조리된 음식으로 구성된 기본식단, 건강과 면역력을 채워줄 제철과일과 간식 등을 포함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 소독을 통한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급식의 준비 및 조리 공간을 철저히 소독·방역하고 당일 조리한 음식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음식 조리에서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전남서부보호원치정목포지청 보호대상 독거 어르신, 여성장애안심터, 외국인미자립지원센터 시설 등에 밀반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과 목적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

(사)서귀포YWCA

현영아 간사

여성영화상영회 '스크린&마이크'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3월 7일(금) 오전 10시 서귀포YWCA 회관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영화상영회 '스크린&마이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여성의날의 상징인 빵(생존권), 장미(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여성영화 '거룩한 분노'를 상영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거룩한 분노'는 1971년 유럽에서 가장 늦게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스위스에서 평범한 가정주부 노라가 여성 참정권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 관람 후 여성의 참정권과 관련한 간담의 시간이 있었고, 성평등한 사회를 지원하는 피켓을 들고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했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3.8 세계여성의날 행사 참가



3월 8일(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과 함께하는 제20차 순천시민 촛불광장'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순천YWCA는 117년 전 생존을 위한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여성들의 마음을 담아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로 만든 '머핀'을 나누었고, 순천YWCA합창단은 성평등한 세상, 모두가 안전한 세상,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포용과 연대로 나아가는 세상을 위해 '바람의 빛깔, Heal the world' 를 노래하였다. 순천YWCA는 촛불광장에 모인 순천시민들과 함께 단순한 생존만이 아니라 존엄한 삶과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포용과 연대로 함께 나아가자고 외쳤다.

(사)여수YWCA

주자연 간사

여성의날 기념 '2025여수시민걷기대회'



3월 7일(금) 여수미평공원에서 2025 여수시민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성평등 정책 실현은 국가의 기본 책임입니다."라는 연합회 성명서로 결의하며 3.8km 완보하였다. 완보한 참여자들에게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장미브로치와 생존권을 의미하는 빵을 제공하며 세계여성의날의 의미를 전달했다. 이 밖에도 준비체조, 사전-완주경품추첨, 체험-홍보부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여수YWCA는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한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익산YWCA

윤명희 사무총장

2025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개최



청소년 보호를 위한 2025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이 3월 13일(목) 오후5시 익산YWCA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기관 및 감시단원들이 참석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해의 주요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감시단 박연국 회장은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을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불법유해업소감시, 청소년 대상 유해물질 판매 단속 및 캠페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감시단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전주YWCA

손예지 간사

제24회 전북 여성대회 참여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4회 전북 여성대회가 지난 3월 6일(목)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시대를 잇는 우리의 연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대회는 전주YWCA를 포함하여 다양한 여성단체와의 연대로 주최되어 차별 없는 성평등한 사회와 정책을 위한 촉구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캠페인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성의 날의 역사를 알리고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홍보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기념식 진행,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 시상하였다. 또한 자유발언, 문화공연,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거리 행진 등을 통해 여성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연대하는 장이 되었다.

(사)제주YWCA

김민지 간사

2025 1차 이사·실무자 연수 진행



제주YWCA는 3월 10일(월) 본 회관 3층 강당에서 본부를 비롯한 부속시설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1차 이사실무자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YWCA 활동가들이 환경실천가로서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행동실천에 대해 토론했다. 실시간으로 목표량을 설정하여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설정한 공통 실천행동 1개와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개인 실천행동 2개를 설정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활동가들이 일상 속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는 행동력을 가지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다.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단 담배소송

담배소송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담배회사(주KT&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3,465명의 진료비

소송 목적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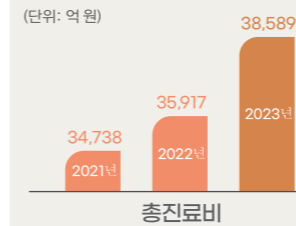
흡연폐해 공론화 및 담배회사 책임 규명



담배규제 및 금연문화 확산으로 국민보건 향상

흡연 피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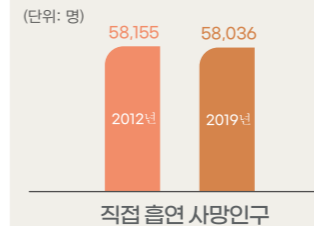
건강보험 재정 지출 현황



※ 진료실적은 발체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의료급여 포함, 비급여 제외

출처: 건강보험연구원('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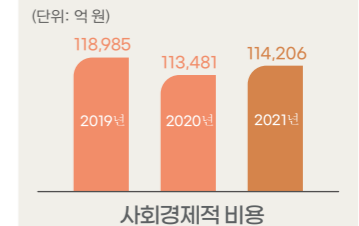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 매일 159명이 사망하는 수치

출처: 질병관리청 담배폐해 통합 보고서('22)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 현황



※ 직접비(의료비, 비의료비), 간접비(생산성 손실액·저하액 및 미래소득손실액)

출처: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비용 및 정책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23)

진행 경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14.4.14.

1심 판결 선고
(공단 패소)
'20.11.20.

항소 제기
(서울고등법원)
'20.12.10.

항소심 진행중

주요 주장 및 1심 판결

쟁점	공단	1심 판결
인과관계	흡연자들의 폐암·후두암 발병 원인은 담배이다.	폐암·후두암은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해 발병가능하다.
제조물책임	담배 유해성·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 저감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흡연의 시작 지속은 개인의 선택이다.
불법행위	저타르, 마일드 등의 단어로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유해성을 축소·은폐 시켰다.	담배 유해성·중독성을 축소·은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담배회사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담배**를 판매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는 반면, 흡연폐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